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제1441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네이버 '라인' 美·日 동시상장 '대박'

뉴욕 데뷔 첫날 27% 폭등… 도쿄선 매수주문 매도의 5배
美 투자은행 제프리스, 상장당일 종목 이례적 '매수' 의견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관련기사 3면

라인은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기업공개(IPO) 공모가인 주당 32.84달러 대비 27% 폭등한 41.5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라인은 15일 도쿄증시 상장도 대성공을 거뒀다. 다만 이날 도쿄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라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오전에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의 5배에 달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상장으로 라인의 시가총액은 87억 달러(약 9조8800억 원)에 이르게 됐다. 라인은 뉴욕증시에서 총 3500만 주를 발행해 약 13억 달러를 조달했다. 뉴욕증시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물량은 2200만 주이며, 도쿄에서는 1300만 주가 상장됐다. 아울러 라인은 525만 주에 이르는 초과배정 옵션도 행사할 계획이다.

이로써 라인의 IPO는 올해 IT 기업의 IPO 중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올 들어 미국에서 IT 기업의 IPO가 저조한 가운데 시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폭넓은 인기를 끄는 라인의 상장에 주목했다.

이날 상장 기념 오프닝벨은 황인준 라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울렸다. 신중호 최고글로벌책임자(CGO)와 마스다 준 최고전략마케팅책임자(CSMO)도 참석했다. 황 CFO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요 시장 4곳, 일본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 집중할 것"이라며 "현 사업을 강화할 투자 기회에 자금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호 CGO는 미국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사용자가 스마트폰 환경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진화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음악 스트리밍과 결제,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CNN머니는 "투자자들에게 비치는 라인의 매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CNN머니는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앱으로 2억1800만 명에 이르는 막대한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광고와 가상상품, 결제 등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례적으로 상장 당일에 라인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목표주가는 일본 공모가보다 27% 높은 4200엔으로 각각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라인의 최대 과제는 정체 상태에 빠진 사용자 증가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려면 일본과 동남아시아 외의 다른 해외시장으로 보폭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이날 열린 상장 기념 행사에서 황인준 최고재무책임자(CFO·왼쪽), 신중호 최고글로벌책임자(CGO·가운데 오른쪽), 마스다 준 최고전략마케팅책임자(CSMO·오른쪽)가 첫 거래를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리며 자축하고 있다. 뉴욕/EPA연합뉴스

본지 수습기자 '포켓몬 고 성지' 속초 가보니

알까기 알바 "이틀간 10만원 벌어"

엑스포공원엔 스마트폰 보며 포켓몬 사냥하는 사람들 많아
당일치기 셔틀버스 상품 등장
상가, 휴가철 겹쳐 '특수' 기대



'포켓몬 고(GO)' 열풍에 속초에선 일명 '알까기 알바'도 등장했다. 이들은 게임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받는다.

"손님이 계속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여름 휴가철인데 속초 알리기에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14일 강원도 속초시에서 만난 한 음식점 주인은 기자의 질문에 활짝 웃었다. 그는 뉴스를 보고 '포켓몬 고(Pokemon GO)' 때문에 '속초 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안 그래도 해외로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며 휴가철 특수가 전만 못한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호재가 마냥 반갑다는 말을 수차례 덧붙였다.

속초 엑스포공원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다양한 포켓몬이 잡힌다는 소식이 게임 커뮤니티에서 소개되자 이곳은 '포켓몬 고'의 성지가 됐다. 이날 역시 포켓몬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서울에서 왔다는 A(22)씨는 "아침 일찍 속초에 도착해 포켓몬 고를 즐기고 있다"면서 "버스요금과 식비를 포함해 총 8만 원가량을 썼는데, 이왕 속초에 온 김에 바다에서 여유를 즐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당일치기로 속초를 방문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새로운 여행상품도 등장했다. 몇몇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앞다퉈 '포켓몬 고 당일 셔틀버스' 상품을 발 빠르게 내놓고 속초행을 유혹하고 있다.

속초 해수욕장 인근의 한 펜션 주인은 "아직까지 예약 폭증 상황은 아니지만 포켓몬 고 뉴스가 잇따르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숙박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포켓몬 고 열풍은 이색 아르바이트도 만들어 냈다. '1㎞=1000원, 알까드립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다니는 김도용(25) 씨는 자신을 '포켓몬 고 베이비시터'라고 소개했다. 포켓몬 알을 부화시키려면, 일정한 속도로 2~5㎞의 거리를 직접 걷거나 뛰어야 한다. 인천에서 '알까기 알바'를 하기 위해 속초로 왔다는 김 씨는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전동휠을 타고 이동하며 1㎞당 1000원씩을 받고 알을 부화시켜 준다. 오늘이 이틀째인데 하루 5만 원 이상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정용욱·김정웅 기자 dragon@

우리銀 매각 '청신호'… "20여곳 투자 의향"

"유효 투자자 의미 있는 숫자"
금융위, 이달말 공자위 열어
이르면 다음달 초 매각공고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이달 말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전체회의(본위원회)를 열어 유효 투자자 선별, 매각방식,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서 우리은행 지분 매입 의사가 확실한 유효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매각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구체화하고 나선 주된 이유는 '투자 수요'와 '주가 상승'이 꼽힌다.

금융위는 지난달 우리은행 매각 시장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숫자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매각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분 투자 의향이 있는 20여 곳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리스트가 금융위에 전달됐으며 임종룡 위원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유효 투자자인 만큼 금융위가 우리은행 매각 성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 여파로 주춤하긴 했지만 우리은행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14일 종가 기준 우리은행 주가는 9930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남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지분 매각 적정가로 정한 주당 1만3000원에는 못 미치지만 경영실적 개선, 해외 기업설명회(IR)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다고 하니 기대는 되지만, 과거에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는 만큼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51%의 우리은행 지분을 4~10%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통해 다섯 번째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자동차 검사 수수료 내달부터 6.7% 인상

내달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평균 6.7%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14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의 경우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된다.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는 1000~4000원 오른다.

이에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정기검사(최초 4년)는 현행 2만 원에서 2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종합검사(최초 6년, 이후 2년마다)의 경우 부하검사(2륜구동)는 5만1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무부하검사(4륜구동)는 3만8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경차의 경우 정기검사는 현행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정필 기자 roman@

포스코 및 타 회사의 포스코플랜텍 지원 내역

2010년 3월	포스코,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1600억원에 인수
2010년 10월	포스코건설, 799억원 유상증자
2012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 567억원 유상증자
2013년 7월	성진지오텍–포스코플랜텍 합병
2013년 12월	포스코, 718억원 유상증자
2014년 12월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 2900억원 유상증자

채권단 관리 이후 포스코플랜텍

2015년 9월	포스코플랜텍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 체결
2016년 1월	화공 · 해양 지속 적자로 울산1공장 생산중단
2016년 2월	울산1·2공장 패키지 매각 추진
2016년 7월	지역기업과 울산공장 매각 협의중

포스코, 6000억 쏟아부었던 '포스코플랜텍' 500억 헐값 매각

〈前 성진지오텍〉

6년반 동안 수천억 손실만 안겨
울산 플랜트기업 우선협상자로

포스코가 인수금과 유상증자로 6000억 원을 쏟아 부은 포스코플랜텍 울산공장(옛 성진지오텍)이 지방 기업에 헐값으로 팔린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최근 영남지역의 한 소규모 플랜트 기업을 울산 1·2공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기업은 울산 1·2공장 설비와 부지를 모두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울산 2공장은 플랜트 설비를 제작, 납품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이들 공장의 매매 가격은 500억~800억 원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울산에 공장을 둔 플랜트 기업 성진지오텍을 1600억 원에 인수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400억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원했다. 결국 이번 매각으로 건지는 금액은 총 투자액의 10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포스코는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회사"라고 홍보했었다. 하지만 6년 반 만에 막대한 손실만 본 채 청산하게 된 것이다.

매각은 3분기(7~9월) 중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회사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 완료 시점을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옛 성진지오텍을 의도적으로 청산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게 됐다. 이미 이 회사는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낸 끝에 지난 4월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상장 폐지됐다. 3월 기준 소액주주 지분은 16.26%였다.

상장 폐지 당시 포스코플랜텍의 정리매매 가격은 90원까지 떨어졌었다. 이후 울산공장 매각, 대주주인 포스코의 지원 재개 기대감으로 장외시장인 K-OTC BB에서 최근 500원대까지 올라 거래되고 있다. 다만 울산공장이 매각된다 해도 이 자금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면서 일반주주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데이터 뉴스 Data News



조기유학 시들하니 10대 출국 '뚝'

2000년대 거세게 불던 조기 유학 열풍이 잦아들면서 10대 이하 내국인 출국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제인구이동'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중 특히 10대 출국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0대 내국인 출국자 수는 3만4138명으로, 조기유학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2006년 출국자 5만9125명에 비해 42.3%나 줄었다. 통계청은 조기 유학 열풍이 잦아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Biz Enter ▶18



영화 '트릭' 강예원

골프 ▶20



올림픽 숲 노린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이재용 부회장 ▶14



이규엽 센터장 ▶17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24조 몸집 불린 삼성전자 '원톱'…현대차는 한전에 2위 내줘

시총 30위 종목 판도 변화

유가증권시장 순위 요동

삼성전자 185조→209조 '부동의 1위'

SDS 12위→24위…나머지 계열사 부진

현대·기아차 동반하락 '모비스'만 선방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7조 추정 '맑음'

현대·기아차 시장 추정치 하향 '흐림'

네이버·LG생활건강 호실적 이어갈 듯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선 시가총액 상위종목 기업들의 순위 변동이 활발했다. 부동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대장주 자리를 수성했다. 현대차는 2위에서 3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기아차도 11위에서 15위로 미끄러졌다. 반면 네이버, LG생활건강, KT&G 등은 시가총액 순위가 오르며 약진했다. 자동차·화학·철강 등 '중후장대'산업이 주춤하고 화장품·인터넷 등 소비재 업종이 도약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24조 불어나 = 14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12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0위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 변동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과 비교해 순위가 같은 기업은 삼성전자, KB금융, 강원랜드 등 3개사(10%)에 불과했다.

시가총액 10위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 시가총액이 185억5972억 원에서 12일 209조3071억 원으로 23조7099억 원(12.77%)이 불며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올해 2분기 8조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잠정발표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대로 올라선 것은 2014년 1분기(8조4900억 원) 이후 9분기 만이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24조 원 늘며 1위를 수성했지만 다른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는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은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삼성생명은 8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이 기간 시가총액이 각각 5.71%, 12.27% 감소했다.

특히 삼성에스디에스는 같은 기간 순위가 12위에서 24위로 급락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이 기간 시가총액이 19조6540억 원에서 11조650억 원으로 반토막(43.70%) 났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달 7일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사업을 분할한다고 밝혔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배구조 프리미엄 기대감이 소멸하며, 지난달 27일 장중 13만2000원까지 내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 시가총액 순위 동반하락 = 현대기아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부분은 시가총액 순위가 하락했다. 현대차는 같은 기간 시가총액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밀렸다. 이 기간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32조8212억 원에서 29억765억 원으로 11.41% 감소했다. 현대차의 2위 자리는 한국전력이 꿰찼다. 한국전력은 이 기간 시가총액이 32조892억 원에서 38조2611억 원으로 19.20% 증가하며 3위에서 2위로 올랐다. 현대차와의 시가총액 차이는 7320억 원에서 9조 원대로 벌어졌다.

같은 기간 현대차와 함께 기아차도 11위에서 15위로 미끄러졌다. 기아차는 이 기간 시가총액이 21조3221억 원에서 16조8631억 원으로 20.91%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현대모비스는 시가총액 순위가 6위에서 4위로 올랐다. 이 기간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은 23조9953억 원에서 25조5041억 원으로 6.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10위에서 6위로 올랐다. 이 기간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21조6894억 원에서 24조8868억 원으로 14.74% 증가했다. 네이버는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라인(LINE) 상장이 임박하며 시가총액이 불었다. 같은 기간 KT&G는 19위에서 12위로, LG생활건강은 16위에서 14위로 상승했다. KT&G와 LG생활건강은 이 기간 각각 시가총액이 22.49%, 6.19% 증가했다. 자동차·화학·철강 등 중후장대 업종이 주춤한 반면 화장품, 인터넷, 생활용품 등 소비재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약진했다.

◇삼성전자 올해 3분기 실적 '양호' =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부동의 1위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도 양호한 실적을 내며 대장주 자리를 수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7조4273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7조3900억 원)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깜짝실적을 낸 전 분기 대비로는 8.30% 감소한 수치다. 시가총액 2위인 한국전력도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64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 전 분기 대비 76.1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6982억 원으로 눈높이가 꾸준히 하향되고 있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588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증가하지만, 부진한 전 분기 대비로도 8.7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65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4%, 전 분기 대비 10.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네이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7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와 전 분기 대비 각각 36.02%, 1.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생활건강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384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와 올 2분기보다 각각 24.37%, 11.69% 증가해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정 기자 mjk@

시총 상위종목 단위 : 억원, %

종목명	순위	2015년 말	→ 2016년 7월 12일	시총증감률
삼성전자	1(–)	1,855,972	2,093,071	12.77
한국전력	2(▲1)	320,982	382,611	19.20
현대차	3(▼1)	328,212	290,765	-11.41
현대모비스	4(▲2)	239,953	255,041	6.29
삼성물산	5(▼1)	265,566	250,391	-5.71
NAVER	6(▲4)	216,894	248,868	14.74
아모레퍼시픽	7(▼2)	242,310	247,572	2.17
SK하이닉스	8(▼1)	223,861	232,961	4.07
삼성생명	9(▼1)	220,000	193,000	-12.27
POSCO	10(▲8)	145,166	185,272	27.63
신한지주	11(▲2)	187,546	181,618	-3.16
KT&G	12(▲7)	143,471	175,734	22.49
SK텔레콤	13(▲1)	174,007	175,218	0.70
LG생활건강	14(▲2)	163,991	174,143	6.19

종목명	순위	2015년 말	→ 2016년 7월 12일	시총증감률
기아차	15(▼4)	213,221	168,631	-20.91
LG화학	16(▼7)	217,701	167,003	-23.29
SK	17(▼2)	169,217	147,053	-13.10
삼성화재	18(▼1)	145,678	129,807	-10.89
SK이노베이션	19(▲3)	120,205	127,602	6.15
KB금융	20(–)	128,076	127,496	-0.45
아모레G	21(▲2)	118,091	126,070	6.76
LG	23(▲3)	122,170	111,472	-8.76
삼성에스디에스	24(▼12)	196,540	110,650	-43.70
고려아연	25(▲1)	88,500	105,483	19.19
LG디스플레이	26(▲2)	87,844	102,156	16.29
롯데케미칼	27(▲2)	83,461	99,399	19.10
LG전자	29(▼2)	88,043	92,297	4.83
강원랜드	30(–)	82,153	87,181	6.12

※제공 : 에프앤가이드(DataGuide)



대형주 쓸어담는 기관…왜

브렉시트·사드 변동성 확대…롯데케미칼·LGD·삼성물산 '러브콜'

"1870~2000 새로운 박스피 예상 실적개선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후폭풍 우려까지 커지자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다.

국내 증시가 외부 리스크 환경 변화로 인해 대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를 매수 기회로 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형주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기관투자자들이 대형주를 주목하는 이유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브렉시트 다음 거래일인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기관투자자들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종목들을 분석한 결과 롯데케미칼(864억 원), 포스코(833억 원), LG디스플레이(677억 원), 삼성물산(602억 원), 현대차(361억 원), NAVER(247억 원), 삼성에스디에스(208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관 순매수 상위종목(기간 : 6월 27일~7월 13일)

※출처 : 한국거래소 및 대신증권

종목명	수량(백주)		금액(백만원)
롯데케미칼	3,060	→	86,412
POSCO	3,969	→	83,382
한국항공우주	9,454	→	71,524
LG디스플레이	25,181	→	67,756
삼성물산	4,646	→	60,217
한미사이언스	2,498	→	39,191
삼성화재	1,418	→	37,612
현대차	2,405	→	36,127
KT	9,604	→	29,148
한국콜마	2,697	→	27,579
효성	2,187	→	27,435
NAVER	347	→	24,755

특히 기관은 브렉시트 투표일 이후 일주일간은 삼성전자(764억 원), 현대차(599억 원), SK하이닉스(488억 원), 포스코(354억 원), 한국전력(344억 원), NAVER(276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브렉시트 여파로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들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2%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대형주에 대한 기관들의 '러브콜'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대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안정적인 대형주, 그중에서도 실적 개선주들이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외부 리스크 환경 변화로 인해 1870~2000포인트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압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 브렉시트에 따른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독립 문제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적 개선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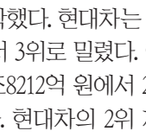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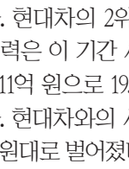
Prid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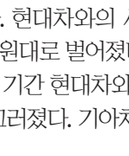
이사부호! 해양과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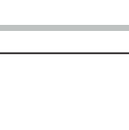
대한민국 해양과학의 자부심 KIOST!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와 함께 대한민국 해양과학 역사를 새로이 만들어갑니다.

KIOST 이사부 프로젝트


바다 되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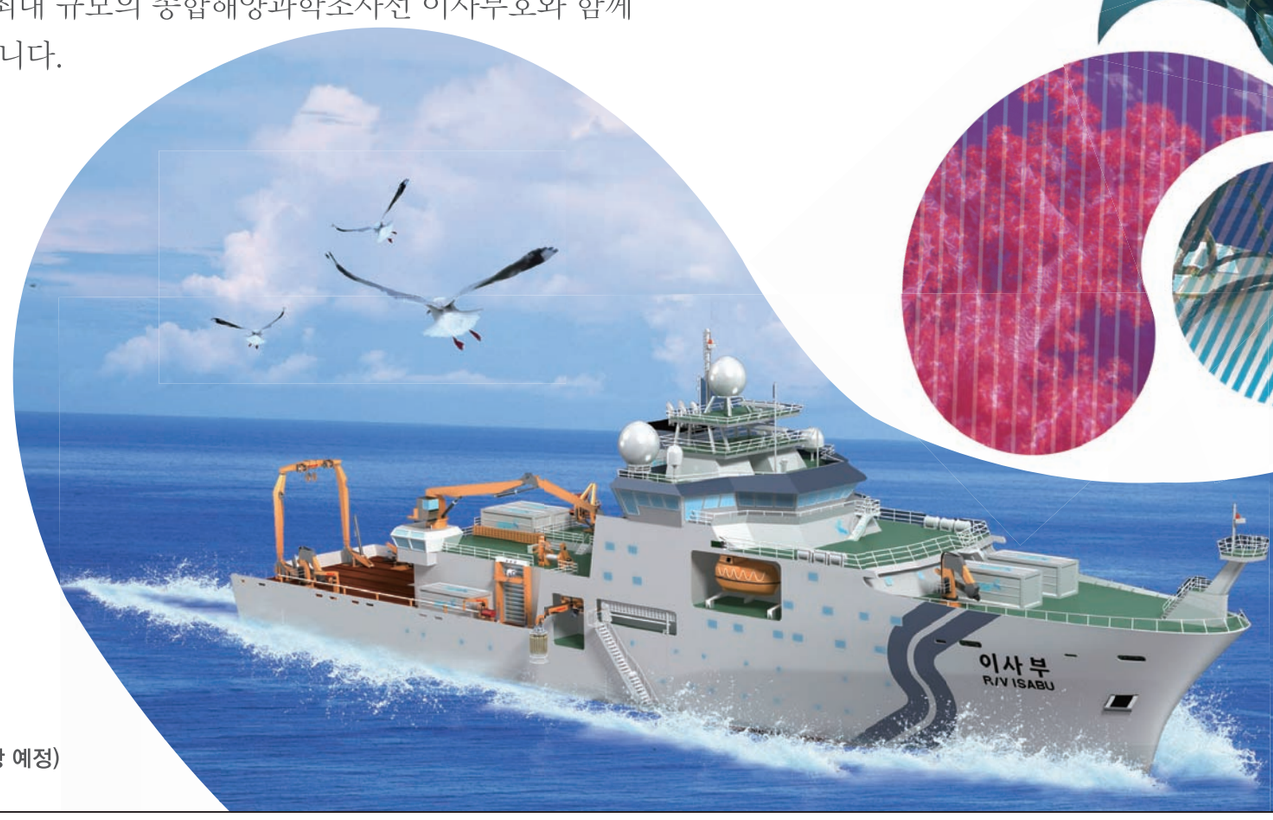

미래 바다보기


바다자원 찾기


안전한 바다 만들기


우리바다 지키기

* 종합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5,900톤급/2016년 10월 취항 예정)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www.kiost.ac.kr

라인, 페북·텐센트와 어깨 나란히… '글로벌 날개' 편 네이버

美·日 동시상장 '대박'

CNN "성공적 데뷔…글로벌 경쟁력 인정"
광고사업 성장세 수년내 흑자전환도 가능
침체된 IT기업 IPO 기폭제 역할 기대감

라인이 미국과 일본에서의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면서 미국 페이스북과 중국 텐센트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업체들과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미국 CNN머니는 라인이 이날 뉴욕증시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한 것은 최근 사용자 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라인이 페이스북 위챗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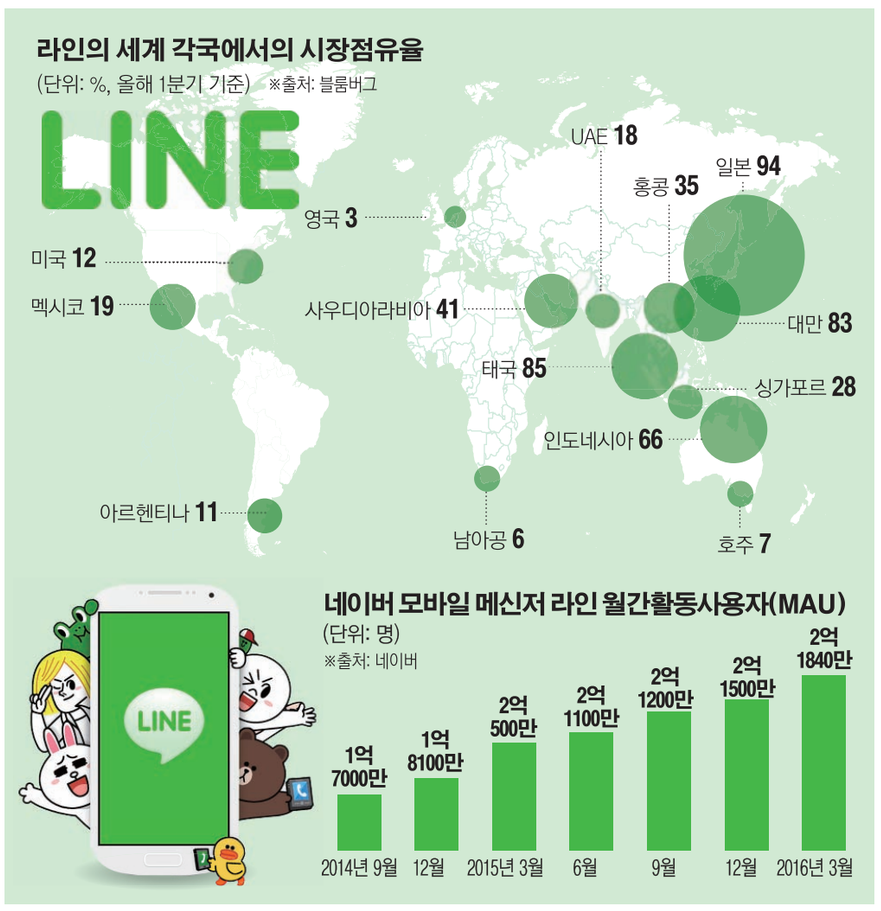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인은 일본과 대만 태국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일본 메시징 앱 시장에서 라인의 점유율은 94%에 달했으며 대만이 83%, 태국이 85%를 각각 기록했다. 인도네시아(66%)와 사우디아라비아(41%)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라인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10억 달러(약 1조1360억 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흑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아툴 고얄 애널리스트는 "라인은 일본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다. 현지에서 메시징 플랫폼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며 "이런 라인의 위치는 중국의 텐센트, 한국의 카카오, 서구권의 페이스북과 흡사하다"고 역설했다. 고얄 애널리스트는 "포켓몬 GO의 성공으로 트위터보다 많은 사용자를 갖게 된 닌텐도의 부상처럼 라인은 새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는 라인의 전통적 수익원이었던 스티커와 게임 배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라인이 적절하게 성장 동력을 광고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페이스북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인은 지난 2013 회계 연도 광고수입이 50억 엔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260억 엔으로 급증했다"며 "오는 2018년에는 880억 엔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프리스는 광고 사업의 성장으로 라인의 매출이 앞으로 3년간 90% 급증하고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라인의 IPO 성공은 한동안 침체됐던 IT 기업들의 IPO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올해 미국에서 IPO에 나선 IT 기업은 라인을 제외하면 4곳에 불과하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앱 업체인 우버 등 유수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에 관망, 증시 상장보다는 개별적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라인 역시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IPO에 성공했다. 앞서 라인은 지난 2014년 IPO를 추진했으나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를 두 차례나 철회했다. 이번 IPO를 앞두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라는 악재가 터졌으나 다행히 글로벌 증시는 안정을 되찾았다. 언론들은 라인의 성공적인 증시 데뷔로 IPO를 꺼리는 기업들의 전략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폭제를 마련한 셈이 됐다고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이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상장한 가운데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서 (가운데부터 오른쪽으로) 황인준 최고재무책임자(CFO), 신중호 최고글로벌책임자(CGO), 마스다 준 최고전략마케팅경영자(CSMO)가 상장을 자축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욕/EPA연합뉴스

이해진 '1조5000억 상장 실탄' 어디에 쓸까

라인 메신저 서비스 개발에 4265억 투입
미국·유럽서 M&A… 글로벌 확장 전략
日 알뜰폰·동남아 O2O '신사업' 강화도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제 관심은 글로벌 증시 상장으로 조달한 수조 원대의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이해진〈사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겸 라인 회장의 선택에 집중되고 있다.

라인이 미국 증시 입성 첫날부터 축포를 쏘아 올린 만큼, 이 의장의 글로벌 구상도 더 크게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라인의 공모가 3300엔(약 3만7900원) 기준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1조3265억 원이다. 또 추가 배정 옵션으로 1989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라인을 통해 조달 가능한 금액은 1조5000억 원대에 달한다.

ICT 업계는 이 의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라인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일본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 작업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의장은 라인 조달 금액 가운데 시설자금 1394억 원, 운영자금 2871억 원 등 총 4265억 원을 라인 메신저 서비스 개발에 투입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동시에 인수·합병(M&A)을 통한 글로벌 확장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라인은 아시아지역 이용자 수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륙별 편중 현상이 심하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로 현지기업을 상대로 M&A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라인의 조달 금액에서 3839억 원을 타 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배경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의 해외 증시 상장은 거대한 자본과 브랜드를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더욱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력 자금 집행처는 신사업 분야다. ICT 업계에서는 이 의장이 5519억 원의 기타 자금을 활용해 신규서비스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조만간 '라인 모바일'로 알뜰폰(MVMO)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온다.

양창균 기자 yangck@

"90만원까지 상승여력"… 네이버 주가 전망도 '맑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미국과 일본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모회사 네이버의 주가에 대한 기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의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0% 가까이 상승했다. 전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은 24조1940억 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밖을 맴돌던 네이버는 라인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8위까지 뛰었다. IPO가 임박한 이달 들어서는 10거래일 중 7거래일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라인의 성장성에 주목하며 네이버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라인이 상장해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되면서 네이버의 주가는 라인의 주가와 궤를 같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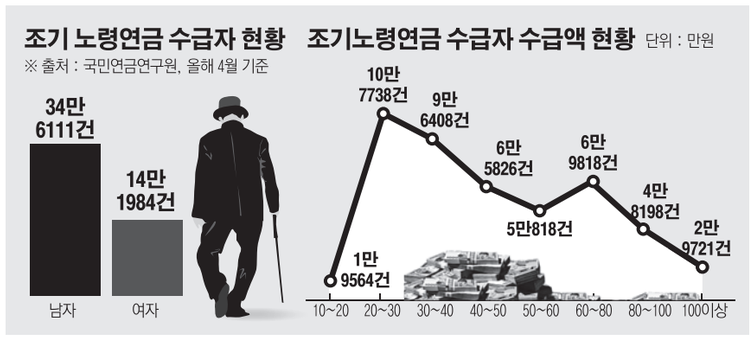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라인의 가치는 15조 원, 네이버 포털에 대한 가치는 3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한 네이버의 주가는 향후 90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실직·명퇴에… 연금 조기 수급자 50만명

은퇴 후 생계난에 당겨 써
급여 연 6% 감액률 적용
10만~20만원 수령 가장 많아
'노후소득보장' 취지 약화



노후 생계난에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사람이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48만8095명이다. 이는 1년 전(45만5081명)보다 6.76%(3만3014명) 증가한 규모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앞서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순아 박사의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를 보면 한국은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며 많은 한국 노인이 소득활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조기연금 수급자들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보다 연금을 일찍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 6%(월 0.5%)의 감액률이 적용된 급여를 사망 시까지 받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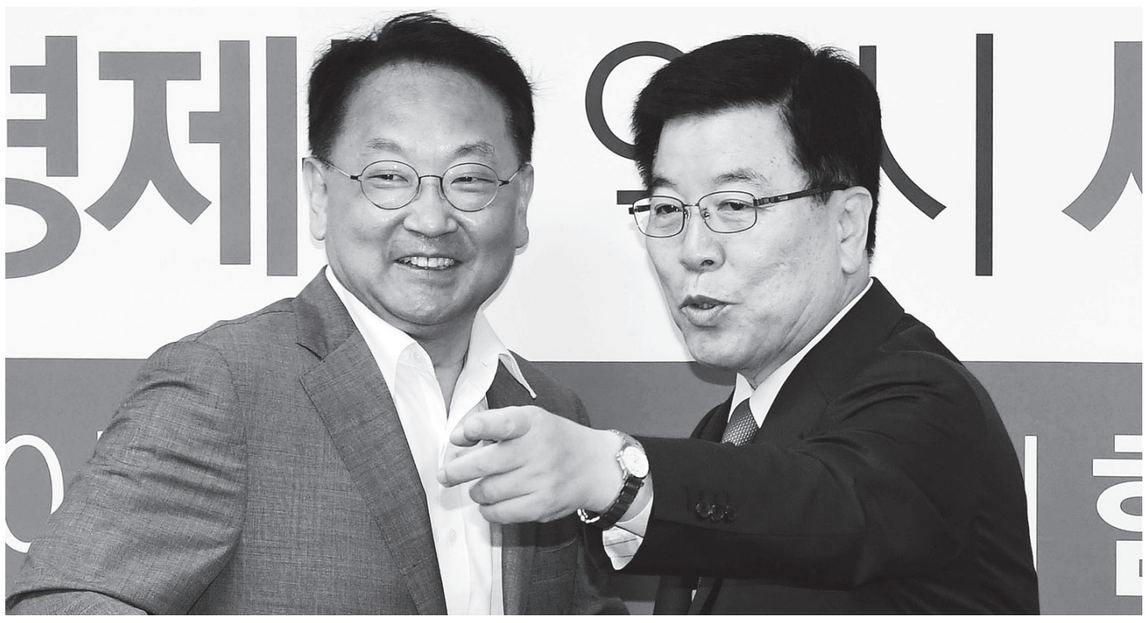
이 같은 저연금 문제는 조기퇴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인 노후소득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을 보면 10만~20만 원을 받은 사람이 10만7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만~40만 원을 받는 사람은 9만640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2만9721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해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고, 향후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과 급여수준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조기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하려면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줄줄 새는 실업급여 관리 강화
실업인정 처리 기한 1일→5일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증하는 실업인정 신청 처리 기한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늘리기로 했다. 실업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 가는 '세금도둑'을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획조사와 고용부·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995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총 부정수급액은 99억 원으로 무려 163%나 급증했다.

이는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지만,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규모가 상당하다는 얘기도 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한 달에 129만 원(30일 기준)씩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돼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내는 이들이 늘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수급자 재취업활동에 대한 사전 정보나 조사 인력 등이 부족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날까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전민정 기자 puri21@

당정, 10.2조 추경 확정… SOC 예산 포함 않기로

당, 일자리 대책 마련 촉구

당정은 15일 10조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세부내역을 조율했다. 중소 조선사를 위해 관공선 발주 등 1조 원의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10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고금으로 들어와 있는 잉여금 1조2000억 원과 세수 9조 원에 플러스 알파로 전체 10조 원이 좀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 징세 실적이 좋아 국채 발행 없이 세제잉여금 등 재원으로도 편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최근 최고점을 찍은 청년실업률에 우려를 표하며 추경을 통한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 잠재적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창업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 대책과 중소 조선사 일감 마련 등의 대책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덜 떠나고, 중국의 불법 어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 경비선 군함에 대한 일감의 조속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관련 지역경제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고민을 담아 추경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은 유 부총리에게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기피 및 환급 거부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질의 RG 등의 보증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로 2412억 손실"

주식부문서 대규모 적자

국민연금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우조선은 사업보고서 기재 정정을 통해 2013년과 2014년 영업흑자를 대규모 적자로 계상하고, 감사원을 통해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2016년 대우조선에 1조5542억 원을 투자해 2412억 원의 손실을 봤다. 특히 손실이 많은 주식부문에 1조1554억 원을 투자했다가 236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회계분식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 향후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이미 2015년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은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문에도 3988억 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5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대우조선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물가·금리·성장률' 3低 덫에 갇힌 이주열

성장률·물가 각 0.1%P 내려
브렉시트 등 대내외 변수 발목
정부 정책만 바라보는 상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금리,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 머무는 3저(低)의 덫에 빠졌다. 덫에 갇혔다는 것은 마땅히 현 상황을 빠져나올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 이 총재가 본인이 조정할 수 없는 대외 요인과 정부의 재정 정책만 바라보는 천수답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14일 한은이 경제성장률은 내리고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더욱 극명해졌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날 이 총재도 언급했듯 기준금리 인하는 6~8분기 이후에나 경제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달 한은의 금리 인하는 '선제적'이었다기보다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도우미 역할 정도에 그친 셈이다.

대내외 변수도 이 총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달러 환율 하향세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8%에서 2.7%로, 물가상승률을 1.2%에서 1.1%로 각각 0.1%포인트 낮췄다. 다만 이 총재가 각각의 하향 배경으로 김영란법 시행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궁색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영란법의 구체적 실행범위와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미증유의 상황에서 물가 및 경기와 관련한 책임주체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것이란 지적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0%대 물가의 원인을 대외적 요인 탓으로 돌린 것은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목표 설명회에서 자료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금통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한은의 역할은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2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부진해지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재혁·남주현 기자 freshphase@

대형마트 4사, 공정거래시스템 도입

공정위 "각 회사 이행여부 점검"

대형마트 업계가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대형마트 CEO와의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와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4개 대형마트 CEO들은 대형마트 업계의 자율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계약서 사후 교부 또는 미교부, 부당한 반품 등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법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직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기고 / 윤학배 해수부 차관

슬로시티 청산도부터 동백숲길 거문도까지

올 여름휴가 섬 여행 어떠세요



어느새 여름의 한 중턱에 서 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산으로 계곡으로, 더 나아가 해외로 떠나는 휴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여름 휴가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소리마저 시원한 바다가 제격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바다에 수많은 별처럼 점점이 흩어져 있는, 저마다 아름다움을 지닌 채 자기만의 빛과 멋을 내는 3358개의 섬을 빼놓을 수 없다.

'섬' 하면 가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곳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섬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순간마다 등장하는 주요 무대였다. 완도는 1200여 년 전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름잡던 전초기지였으며, 삼별초의 대몽항쟁으로 유명한 진도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왜구를 크게 무찌른 한산도는 우리의 역사적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인 곳이다.

그뿐 아니라, 최초의 해양생물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자산어보(玆山魚譜)는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도중 완성했으며, 몽돌소리가 상쾌하고 해송이 푸르른 보길도는 한국의 대문호 윤선도가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라는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완성한 곳이니 섬은 우리나라 문화사에 창작의 영감을 준 모태였다.

섬은 단순히 역사,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다. 섬을 둘러싼 200해리는 어업활동, 해양자원의 탐사·개발·이용 등에 관한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는 구역으로, 바다 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이 난사군도의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조어도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섬은 일상에서 지친 도시민들에게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가운데 섬이 15곳이나 선정됐다. 슬로시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힐링 관광지 '청산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불을 밝힌 등대와 동백숲길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거문도'까지 빼어난 풍경을 지닌 섬들이 포함돼 있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를 보면 매년 섬 방문객이 늘고 있다. 2008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600만 명이 섬을 방문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이용자 수가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한 여행객이 1500만 명에 달했던 만큼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행자들에게 경비 부담은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 선사, 지자체가 힘을 모아 연안여객선 할인 이용권 '열정! 바다로'를 출시했다. 만 28세 이하 내·외국인이 '열정! 바다로'를 구매할 경우 여객선 운임을 주중 50%, 주말 20% 할인해 준다.

지자체는 숙박 및 관광지 이용요금을 할인해 준다. 또한 지역의 유명 관광도서 위주로 여객선 할인상품을 추가 개발해 여름 휴가 때 섬 여행을 하면 큰 부담 없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꿈은 엔지니어



'2016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EXPO)'가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이 영남이공대 부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화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을 주제로 직업체험관·전문대학 홍보관·전문대학 학교기업관·진로·진학상담관 등이 운영돼 청소년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 前 검사장 '126억 시세차익 종잣돈' 뇌물 결론

자금 건넨 김정주 대표도 처벌되나

2006년 넥슨 주식·2008년 리스車
檢, 패키지로 뇌물수뢰 혐의 적용

검찰이 넥슨 주식을 매각해 1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주식 매수자금을 건넨 김정주(48) NXC 대표이사도 처벌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진 위원을 긴급 체포했다.

수사팀은 진 위원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신변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뇌물 공여자에 해당하는 김 대표와 함께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거래하면서 126억 원을 얻은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해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판단했다.

진 위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2005년이지만, 이 주식을 팔아 상장사인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시점이 2006년 11월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NXC 대표이사

검찰 논리대로라면 아직 4개월여의 시효가 남아 있다. 검찰은 또 2008년 3월께 진 위원이 넥슨의 법인 리스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부분도 뇌물에 포함했다.

검찰이 진 위원에게 수뢰죄를 적용한 이상 김 대표의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뢰자는 뇌물 액수에 따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만, 공여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상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2500만 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 원을 얻었다.

진 위원은 법무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식 매수 대금 4억여 원을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차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쳤다'고 했지만 매수자금 전액을 김 회장 측이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좌영길 기자 jyg97@

한화,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일부 되찾는다

2008년 노조 반대 실사 못해 계약 포기
산은 "계약불이행" 3150억 전액 몰취
대법원 "위약벌 아니다" 결론 파기환송

한화가 소송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증금의 성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몰취되는 '위약벌'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결론냈다. 한화가 보증금 중 얼마를 돌려받게 될지는 향후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손해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부는 "한화 측이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가 해제돼 최종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인해 산업은행 등이 입은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은 신뢰이익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한화는 2008년 6조3002억 원을 들여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하지 못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9년 6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한화 측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했고,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책임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한화가 건 보증금이 '위약벌'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 산정과 관계없이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3200억 원대 보증금이 거액이긴 하지만 6조3000억 원에 이르는 주식인수대금의 5%에 불과하고 △한화 측의 주식매각절차 무산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생긴 점 △한화 측이 확인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도 최종 계약체결을 미루면서 대금조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좌영길 기자 jyg97@

'5조대 회계사기' 고재호, 캐면 캘수록…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대출·성과급 사기 혐의 구체화땐 더 커져

대우조선해양 고재호(61) 전 사장 재임 시절에 저지른 회계사기 규모가 5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012~2014년 회계사기 규모를 5조7000억 원대로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이익 조작 규모만 2조7000억 원에 이른다.

회계사기 규모는 2012년부터 3년간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대출사기, 성과급 사기 등의 혐의 사실이 구체화되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혐의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추진한 프로젝트별로 현업부서의 로 데이터(raw data·원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액보다 손실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 규모를 산정하면 부실 해외 자회사에 투자한 주식과 채권 손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회계사기 범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송가 오프쇼어사와 체결한 2조4000억 원대 송가프로젝트의 경우 발생한 손실만 1조3000억 원대다. 검찰은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기술 축적이 안 된 상태인 데다 저가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 건조를 하면서 공사손실로 예상되는 금액은 1조300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회계장부에 공사손실충당부채로 반영된 건 108억 원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추고 허위 계상하는 방식은 명백한 회계사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고재호 전 사장 재임시절 재무담당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회계 부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알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부터 3년간 4000억 원 이상 흑자가 나는 것처럼 공시하는 것은 경영진 관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의 대출사기와 성과급 사기 등의 부분은 추가 조사를 거친 후 고 전 사장을 기소할 때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고 전 사장은 이르면 25일께 기소할 예정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대법원 "빈폴의 'B', 발리와 유사… 삼성물산 상표권 등록 거절 정당"

삼성물산이 빈폴의 머릿글자를 딴 알파벳 'B' 모양의 상표를 등록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발리가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 거절결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발리 두 회사의 상표는 형상 등 일부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수요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의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



脫통신사업 가속도…홈IoT 넘어 '소물인터넷'으로 시장개척

〈小物·Small Things〉

'성장 절벽' 한국경제, 활로 찾자 5 통신

성장한계 이통3사 새 수익원 찾기
상반기 '홈IoT' 서비스로 경쟁…
'B2B'사업 산업계 전반 확장 계획
SKT '로라'·'LTE-M' 혼합망 구축
KT 3월부터 전국 서비스 돌입
LG U+는 기업전용망 파트너 확대

이동통신 3사가 성장 한계에 직면한 통신 시장에서 벗어나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내 IoT 시장은 3조3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38.5% 성장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Io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홈IoT 서비스와 B2B 사업을 위한 전용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통 3사는 홈IoT에 치중하던 IoT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산업계 전반으로 확장한다.

이통 3사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홈IoT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홈IoT 시장에서는 통신 시장에서 고착화됐던 '5대 3대 2' 구도를 깨고 새로운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통신 시장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던 LG유플러스는 홈IoT 시장에선 당당히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도 다양한 홈IoT 상품을 내놓고,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과 협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 홈IoT를 수주하고 있다.

이통 3사가 그동안 홈IoT에 치중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B2B 사업으로 눈을 돌린다. 이를 위해 최근 IoT 전국망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SK텔레콤은 '로라'와 'LTE-M'을 혼합한 형태의 전국망 서비스를 구축했다. 로라는 IoT 전용망이고, LTE-M은 LTE망 일부(협대역)를 활용하는 것이다.

LTE-M은 IoT 분야 중 주로 기업 간 거래 영역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물인터넷의 네트워크 기술표준 명칭이다.

KT는 앞서 지난 3월 기존 LTE망 일부를 IoT용으로 활용한 LTE-M 기술로 이미 전국 서비스에 돌입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11월 부산한진해운 신항만의 터미널 운영 시스템에 LTE-M을 활용한 기업 전용망을 구축하는 등 파트너를 확대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SK telecom SK텔레콤 olleh kt KT LG U+ LG유플러스

가스 원격검침 등 20여개 서비스
내년까지 전국 400만 기기 연결

SK텔레콤은 지난 4일 IoT 전용망인 '로라(LoRa)' 네트워크 상용화에 돌입했다. 기존에 구축을 완료한 LTE-M과 연동해 IoT 네트워크 전국망을 구축, IoT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월 이용료 350~2000원의 저렴한 IoT 전용회선 요금제를 내놓고, IoT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이번 달 가스 원격검침(AMI) 사업과 초·중등학교 대상의 세이프 워치 사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0여 개의 신규 IoT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저렴한 요금제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내년까지 전국 400만 개 기기를 연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2018년 IoT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계획이다. IoT 전국망 구축과 함께 홈IoT 사업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사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수주전에 주력한다. 이 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가전제품 △신규 분양주택 △홈 리모델링 분야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LH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분양 및 입주 아파트에 홈IoT 서비스를 차례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LH 아파트 입주자들은 기존의 홈네트워크와 다양한 가전기기 등을 하나의 스마트홈 앱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지난 2월 현대건설과 파트너십 체결 이후 다음 달 분양하는 경기도 지역 1500세대에 스마트홈을 첫 공급한다.

SK텔레콤은 건설사를 비롯해 홈네트워크사와도 제휴를 체결하는 등 스마트홈 서비스를 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파트너들과 함께 에어컨,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IoT 금고 등 스마트홈 연동 가전제품을 41종 이상 출시한 바 있다. 또 에스원, NSOK 등 '보안 관련업체'와 플랫폼 연동을 통해 상시 집 안 모니터링을 넘어 비상시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50개 이상의 제휴사와 협력을 통해 100개 이상의 기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헬스테인먼트' 재미·건강 차별화
2018년 스마트홈 시장 1위 목표

KT는 공격적인 투자로 2018년까지 홈IoT 분야 1위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황창규 KT 회장은 올해 초, 홈IoT 가입 50만 명을 달성, 2018년까지 이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Fun&Care(펀&케어)'를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IoT를 통해 건강, 안전,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홈IoT 사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KT는 새로운 전략을 앞세워 올해까지 총 30여 종의 홈IoT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레tv 663만 가입자가 이용 가능한 '헬스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GiGA IoT 헬스바이크', 'GiGA IoT 헬스 골프퍼팅' 서비스를 선보였다. 단순한 운동에 그치지 않고, 올레tv에서 제공되는 운동 프로그램 영상과 게임으로 재미 요소를 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GiGA IoT 헬스바이크는 '올레tv Wiz게임' 화면과 연동된다. 주행 중 도로의 상태나 경사도에 따라 바이크 페달의 강도가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해 이용자가 실제 주행환경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

GiGA IoT 헬스 골프퍼팅은 실제 골프장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퍼팅 연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IoT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다.

KT는 SH공사와 손잡고 홈IoT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는 지난 4월 재개발 임대아파트 단지인 종암SK, 동소문한진 등 4개 단지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구축 공사를 완료했다. KT는 조만간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헬스케어, 집안 방범 및 보안시스템 IoT 홈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IoT 상용망 구축을 통해 B2B 사업에도 나선다. KT는 지난 3월 기존 LTE망 일부를 활용해 'LTE-M' 전국 서비스에 돌입했다. 해당 망을 이용해 연내 '자전거 도난 방지 관제 서비스', '스마트 혈액 박스', '스마트 라이팅 서비스' 등 2018년까지 연결 사물 수를 40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홈IoT' 선두, 만년 3위의 반란
연내 50만가구 가입자 찍는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부터 권영수 부회장이 홈IoT 사업을 직접 진두 지휘하고 있다. 홈Io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여세를 몰아 업계를 선도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자사 홈IoT 서비스(IoT@home) 상용화 1주년을 맞아 해당 사업 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부서로 편제하고 'IoT서비스부문'을 'IoT사업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앞으로 IoT사업부문은 홈IoT, 산업IoT 분야 전반의 상품 기획과 제휴, 서비스 품질안정화 업무를 맡는다.

이번 조직개편은 IoT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IoT 사업 전반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기준 LG유플러스의 홈IoT 가입자는 약 34만 가구에 달한다. 홈IoT 서비스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홈Io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1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객 댁내에 설치된 IoT 디바이스도 100만 개를 넘어섰다. 이 역시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중 가장 많은 숫자다.

LG유플러스는 연내 홈IoT 서비스를 28종에서 50여 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50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건물 외에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에 빌트인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서비스 상용화 이후 IoT 보일러, IoT 오피스텔, IoT 스마트홈 시스템, 전자업체(LG전자·삼성전자), 가구업체, 펫 액세서리 제조기업, 전동커튼 등 전 산업분야로 IoT 서비스 제휴를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생활가전 전문기업 쿠첸과 함께 원격제어와 모드 자동실행이 가능한 지능형 IoT 밥솥을 출시하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홈IoT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SK텔레콤 직원들이 로라(LoRa) 기지국을 설치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KT는 '펀&케어'를 핵심가치로 정하고 다양한 헬스케어 IoT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KT



지난 1월 LG유플러스의 홈 IoT 서비스(IoT@home) 가입자가 국내 최초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심쿵 환전 페스티벌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경품으로
'심쿵 발랄한' 여름휴가 되세요
환전은 역시 신한은행입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16-2-575호 (2016.6.13~2016.8.31)

다양한 환전 부가서비스

무료여행자 보험가입
휴대품 도난 보장까지 포함된
차별화된 해외여행자보험가입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
창구거래 : $5당 1마일리지
인터넷거래 : $2당 1마일리지

알짜 쿠폰북 제공
공항철도, 인천공항 식음료장,
면세점 등 실용적인 쿠폰북 제공

OK캐쉬백 적립
창구거래 : $1당 3포인트
인터넷거래 : $1당 7포인트

신한글로벌멀티카드
국내최초 10개 외국통화 충전이 가능한
외화선불카드

※다양한 환전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스마트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 Summer Dream | **환전·송금 FESTIVAL** 환전·송금하면 팡! 터지는 경품 이벤트 [행사기간 : 6/20 ~ 8/31]

신한은행에서 USD 100 상당액 이상 환전·송금하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응모하세요

1등(1명) **여행상품권 100만원** **2**등(5명) **여행용 캐리어** **3**등(10명) **폴라로이드+필름** **4**등(50명) **블루투스 스피커** **5**등(50명) **여행용 보조배터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디딤돌’될까… 은행, 고민의 ‘사잇돌’ …‘걸림돌’될까

중금리대출 일주일새 225억 유치
정부 지원속 성공 기대감 높여
“경험부족·신용평가 자료 취약”
은행권은 손실날까 ‘노심초사’



중신용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출시된 5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고객이 사잇돌 대출 가입을 하고 있다. 뉴시스

9개 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유치 규모가 일주일만에 200억원을 넘어섰다. 은행 위주의 중금리 시장 활성화가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사잇돌대출이 7영업일 동안 225억원(13일 기준)을 유치했다. 건수로는 2216건이다.

우리은행은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려 약 40억원(455건)을 판매했고, 이어 신한은행이 약 41억원(371건), 농협은행은 23억원(234건)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잇돌대출은 금융위원회의 제안으로 9개은행이 판매 중인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중금리대출에 맞는 신용등급 체계를 SGI서울보증이 지원하고, 부실에 대해 보증까지 제공한다.

사잇돌대출은 정부의 중금리대출 야심작으로 통한다. ‘새희망홀씨’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했다면, 사잇돌대출은 이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이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정부는 그간 꾸준히 중금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편 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사잇돌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 서민금융평가에 중금리대출 실적을 100점 중 15점 수준으로 반영키로 확정했다.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도 성공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 같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기에 일주일 만에 225억원 유치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상품 설계에서 몇 가지 중대한 취약성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성공여부를 확신하긴 이르다.

우선 시중은행 어떤 곳도 사잇돌대출이 수익 또는 손실로 이어질지 예측하는 곳은 없었다. 오히려 손실이 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자료가 부족하고, 판매 경험도 오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해부터로 판매경험이 1년에 불과하다. 아직 연체율, 부도율 등을 감안해 최적의 상품설계를 할 수 있을만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그야말로 실험적인 상품인 셈이다.

보증에 대한 설계도 완벽하지 않다. 각 은행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의 최대 15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보험료로 내면 최대 1500만원까지밖에 보증이 되지 않는다. 이보다 높은 채권부도가 발생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한다.

은행에서 보증보험 설계에 대한 볼멘소리와 아쉬움을 토로하는 말이 끊이질 않는다.

일각에선 정부가 가계부채를 조장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개인마다 상한이 있지만, 사잇돌대출은 담보대출로 취급돼 신용대출 최대 상한이 늘어나는 효과를 낸다. 기존 체계에서 정해진 최대한도를 넘어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면, 결국 상환능력을 넘어선 부채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취약점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판매 실적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보험료 올린 ‘손보사 빅5’ 실적 ‘방긋’

車보험·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2분기 예상순익 작년보다 9.7%↑

손해보험사 ‘빅5(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5개사의 2분기 예상 당기순이익을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한 6235억원으로 예상했다. 업체별 예상 당기순익을 보면 삼성화재 2305억원, 동부화재 1255억원, 현대해상 949억원, KB손보 954억원, 메리츠화재 772억원 등이다.

당기순익 개선 전망은 손해율 하락에 따른 보험영업이익 개선과 투자영업수익 증가에 근거한다.

김 애널리스트는 5개사의 2분기 손해율을 84.1%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 전분기대비 0.3%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4%로 전년동기대비 1.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손해율 개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장기보험 손해율도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서 기인한 기저효과와 실손의료보험료 갱신효과가 위험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5개 손보사 2분기 예상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출처: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5년 2분기	2016년 2분기 예상
삼성화재	2390	2305
동부화재	1427	1255
현대해상	884	949
KB손해보험	379	954
메리츠화재	603	772
합계	5683	6235

김 애널리스트는 하반기에도 5개사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및 장기보험 갱신으로 손해율 개선세가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비용을 유발했던 현행 시스템의 개선으로 향후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애널리스트는 “보험제도 변경도 손보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그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요인이었던 외제차관련 제도 개선(경미사고 가이드라인 마련·외제차 수리비 절감 및 렌트비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점차 안정화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신한카드, 모바일 플랫폼 동맹 맺는다

O2O 기업과 제휴 공동마케팅 추진… ‘팬’ 강화 나서

신한카드가 모바일 플랫폼 ‘팬(FAN)’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신한카드는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O2O 기업 관계자들과 ‘신한 모바일 플랫폼 동맹(MPA) O2O사 전략적 제휴 체결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한카드 MPA에 참여한 O2O기업은 야놀자(숙박), 헤이뷰티(뷰티), 리화이트(세탁), 플레이팅(요리), 한방이사(이사), 왓슈(신발수선), 꾸까(꽃배달) 등으로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신한금융그룹 고객로열티 프로그램인 ‘팬(FAN)클럽’이 출범하면서 이들 고객들이 다양한 업종의 O2O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별화된 모바일 결제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다양한 업종 특성을 감안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O2O 마케팅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파트너로서의 다양한 매출증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O2O서비스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 이번에 O2O대표기업들과 손을 잡게 됐다”면서 “신한 FAN플랫폼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최적의 O2O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한자리 모인 보험 CEO 17명
“수익보다 안정추구” 한목소리

저금리 대응 정책방향 논의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올해 공격적인 영업보다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저금리 기조, IFRS4 2단계 도입 등 산적해 있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KB손보 양종희 사장 등 17명의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이투데이 기자와 만난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저금리, 저성장 환경인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하반기 영업전략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훈 하나생명 사장 역시 “하반기에 보장성 중심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용복 NH농협생명은 “(경제 환경에 맞는 하반기 경영전략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영업환경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는 만큼 CEO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전날 ‘201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현재 경제상황가 맞지 않는 정책은 재검토하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화생명은 핵심고객 확보를 위한 차별화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고객관리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반면 외국계 CEO들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차태진 AIA생명 사장은 “외국계 보험사가 철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AIA그룹은 한국시장의 수익성을 높게 평가사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XA손해보험의 프랑수와르 꽁뜨 사장 역시 “AXA손보는 온라인 중심이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면서 “AXA손보의 경우 솔벤시2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희·박규준 기자 jhsseo@

미래에셋, 최다특약·맞춤설계 ‘생활의 자신감’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대 수준의 특약으로 고객들의 위험을 맞춤별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15일 70여개 특약으로 다양한 질병과 재해를 보장해주는 종합보장보험 ‘생활의 자신감’ 상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종신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맞춤별로 광범위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들은 직접 기본형, 갱신형, 체증형, 월지급형 등 4가지 유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업계 최대 수준인 70개가 넘는 다양한 특약으로 개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특히,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부터 3위를 차지하여 3대 질병이라 불리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수술과 입원에 대한 폭넓은 보장도 이뤄진다.

예컨대, 수술은 1~5종으로 분류한 수많은 수술들을 종류별로 보장하고, ‘첫날부터 입원특약’을 통해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뇌출혈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뇌혈관질환 보장으로 보장범위도 확대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 보험가입이 제한적이었던 고객을 위한 전용 특약이 갖춰져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박규준 기자 abc84@



칼 뽑아든 이서현 "안되는 건 버린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엠비오·라베노바 접고 'SPA·편집숍' 집중
패션사업 브랜드 효율성 높여 성장 모멘텀
재무개선 위해 비효율 부동산 매각도 검토

이서현〈사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이 취임 7개월만에 체질개선의 칼을 빼들었다.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를 과감하게 철수하고 단순화하는 한편 SPA(생산·유통·판매 일괄) 브랜드와 편집숍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브랜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이와함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에 따르면 14일 박철규 부사장 주재로 팀장급 이상 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사업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 사업점검회의는 사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로 지난 2012년 시작돼 부정기적으로 이어져왔다.

삼성물산은 우선 패션사업을 개편키로 하고, 엠비오와 여성 잡화브랜드 라베노바 철수를 결정했다. 두 브랜드 제품은 내년 2월까지만 판매된다. 엠비오는 1995년 출시된 남성 캐주얼정장 브랜드다. 20~3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중저가 남성복을 선보여왔다. 작년 7월 출시된 라베노바는 이탈리아의 도시 라벤나의 건축양식을 응용한 여성용 가방 등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최근 시장상황이 안좋은데다 엠비오와 라베노바의 실적이 부진해 철수하기로 했다"며 "경영 내실과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시적으로 체질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사업재편 역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패션사업을 개편하는 이유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해 브랜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객층과 이미지가 겹치는 브랜드를 정리하고 수익성 좋은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성복 부문은 로가디스 컬렉션과 로가디스 그린 등을 없애고 프리미엄 정장 브랜드인 갤럭시와 중저가 정장 로가디스 스트리트만 유지한다. 빈폴은 키즈 라인을 없애고 주력 브랜드인 빈폴맨으로 통합한다.

브랜드 재편과 더불어 삼성물산 패션이 집중할 사업은 이 사장이 애착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인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이다. 에잇세컨즈는 중국을 제 2의 내수시장으로 개척한다는 방침 아래 하반기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 주로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 운영해왔던 비이커와 텐꼬르소꼬모도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을 늘리기로 했다.

이 사장은 이번 사업점검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 겸 제일기획 경영전략담당'에서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사장'으로 업무가 변경돼 패션부문장에 취임한지 7개월여만에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수익개선 경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선애 기자 lsa@

철수설 일축한 폭스바겐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



토마스 쿨 사장 "미래 계획 추진 지속"

폭스바겐이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 인증취소 결정 등으로 인한 '국내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마스 쿨〈사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14일 오후 딜러사에 발송한 레터에서 "딜러 파트너사와 고객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며 "지금 저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미래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쿨 사장은 이어 "독일 폭스바겐그룹에 있어서 한국시장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에 본사에서도 폭스바겐코리아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의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판매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딜러들과 고객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진정시키려고 서둘러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 폭스바겐은 환경부가 인증취소 확정 전에 마지막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 일자가 25일로 정해졌다고 밝히면서, 행정 처분은 기존의 고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쿨 사장은 향후 차량 수리 서비스 등이 축소되면서 A/S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향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딜러들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오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홈페이지에 각각 '고객 공지문'을 게재하고 "앞으로 차량 A/S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중고차 매매에 영향을 받게 된다거나, 차량 운행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구했다.

안철우 기자 acw@

현대상선 구조조정 끝… 현정은 회장 품 떠난다

〈현대그룹〉



해운얼라이언스 '2M' 가입
자율협약 3가지 조건 충족
40년 만에 현대그룹서 분리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을 떠나 보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상선이 사채권자 채무조정과 용선료 조정에 이어 글로벌 최대 해운얼라이언스인 '2M' 가입에 사실상 성공시키며 자율협약 이행을 위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인 출자전환만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현대상선은 40여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된다.

현대상선은 14일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보유한 얼라이언스 '2M'과 공동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측은 향후 세부협상 및 각국의 승인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17년 4월부터 공동운항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이로써 지난 3월 채권단과 맺은 조건부 자율협약의 전제조건인 △사채권자 채무조정 △용선료 조정 △얼라이언스 가입을 4개월 만에 달성하게 됐다.

채권단은 계획대로 출자전환을 진행한다. 현대상선은 출자전환을 위해 지난 12일 채권단은 물론 용선주, 공모 사채권자, 일반 투자자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돌입했다.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되는 유상증자 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달 5일 신주 상장이 이뤄진다.

현대상선은 15일 오전 9시 연지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출자전환 전제 조건인 대주주 지분에 대한 7대 1 차등 감자(감자 비율 18.96%)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 지분은 40%대로 늘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현정은 회장 측 지분은 22.6%에서 1.4%로 줄어들게 됐다. 현대상선은 그룹에서 40년 만에 완전히 분리되며, 2003년부터 그룹을 이끌었던 현 회장 품을 13년 만에 떠나게 되는 셈이다.

출자전환이 마무리되면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정부의 '선박 펀드' 지원 조건인 400% 이하로 떨어져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발주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예상된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의 자율협약은 오는 28일 완료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SKT·CJ헬로비전 합병 '실낱 희망'

오늘 오후 공정위 전원회의서 최후 의견진술

7개월 간의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최종심사가 임박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를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최후 의견진술에 나선다.

공정위는 1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SK텔레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경쟁제한을 이유로 이번 M&A를 불허했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법인의 23개가 방송권역중 21곳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고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원회의에서 불허 방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최후 의견 진술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양사는 국내 유료방송산업은 20여 년 전부터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태생적인 특성을 내세워 합병법인이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유료방송 서비스와 결합상품을 이용한 '지배력 전이'도 쟁점이다. 양사는 합병 법인의 가입자수가 718만 명(25.8%)으로 KT의 817만 명(점유율 29.4%)보다 낮아 지배력 전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불허'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번 M&A에 대한 정부심사는 마무리된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동의 의결을 거쳐 M&A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되면 미래부는 곧바로 심사 자문단을 구성, 공정위의 의견을 검토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업자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의 수도 거론된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호주서 잘나가는 'i30'

한국차 첫 '베스트셀링카'
올 상반기 2만1171대 판매 '1위'
도요타 코롤라·마쓰다 3 뒤이어

현대차의 소형 해치백 'i30'〈사진〉이 호주시장에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 경쟁차량인 도요타 코롤라와 마쓰다 3를 따돌리며 올 상반기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올랐다.

15일 호주자동차공업협회(FCAI)에 따르면 현대차의 준중형 해치백 모델 i30은 지난 1~6월 호주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801대)에 비해 무려 45% 증가한 2만1171대가 판매됐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도요타의 픽업트럭 '하이럭스'에 133대 뒤져 누적실적 2위에 머물렀던 i30은 지난달에 역대 월간 최다인 6432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상반기 전체 1위를 거머쥐었다. 한국차가 호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베스트셀링카 1위였던 도요타의 준중형 세단 코롤라(2만544대)와 2위였던 마쓰다 3(2만88대)은 i30과 하이럭스에 이어 각각 3위와 4위에 랭크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i30는 트랜디한 스타일은 물론 실용적인 적재공간과 최적의 동력성능을 통해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차"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품질이 더해져 호주인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i30는 현재 호주에서 1만999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삼성전자 리우올림픽 기념
'갤S7 엣지 올림픽 에디션'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갤럭시S7 엣지 올림픽 에디션'을 18일 국내에 출시한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에서 갤럭시S7 엣지 올림픽 에디션을 106만7000원에 판매한다. 갤럭시S7 엣지 올림픽 에디션은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출시된다. 구매 고객에게는 '기어VR'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피트니스에 특화된 코드프리 이어셋 '기어 아이콘X'을 증정한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시장 쾌속질주

1분기 시장 점유율 30% 넘어
연말까지 40~50% 확대 전망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쾌속 향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매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지난 1분기 전체 인플릭시맙 시장 내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 증가율이 73%로 작년 4분기 증가율 37%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1분기 기준 유럽 인플릭시맙 시장 내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했다.

셀트리온은 2013년 8월 EMA(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램시마 판매 허가를 받아 유럽 발매에 돌입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는 빅5 마켓으로 불리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영국, 독일, 이태리 등은 시장 점유율이 출시 후 약 9개월여 만에 30%에 도달했고 특히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북유럽 주요국가에서는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90% 수준에 이르러 대부분 환자에게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램시마가 처방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신규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들이 모든 적응증에 대해 램시마로 교체처방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유럽 내 주요국가들이 의료재정 절감 효과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정책을 펼치는 것이 점유율 확대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시장 점유율 증가 추이로 볼 때, 올 연말에는 램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40~5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대하게 축적되고 있는 램시마의 실제 처방 데이터와 이를 통한 브랜드 파워가 향후 미국 시장 진출 시 시장침투 가속화 및 후발 경쟁자 대비 월등한 마케팅 파워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갤S6·G4' 공짜폰 되나

이통사 중저가폰 지원금 일제 하향
'갤노트 7' 출시에 고가폰 재고털기

이동통신사들이 팬택 'IM-100'과 애플 '아이폰6'의 지원금을 일제히 축소하고 있다. 공시지원금 상한액 규제를 벗어나게 되는 '갤럭시S6'와 'G4'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내달 갤럭시노트7 출시를 앞두고 중저가폰의 지원금을 일제히 내리고 있다.

KT는 전날 IM-100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에서 29만1000원으로 내렸다. KT는 소비자가 많이 선택하는 월 6만 원대 요금제인 'LTE데이터선택 599'에 대해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27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2만~3만 원씩 줄였다. 더불어 애플의 아이폰6(16GB) 지원금도 최대 58만 원에서 55만2000원으로 2만8000원 축소했다.

SK텔레콤도 지난 8일 최대 33만 원까지 지급하던 IM-100 공시지원금을 요금제별로 3만 원씩 줄였다. 이 회사는 LG 지플렉스2와 LG K10의 지원금도 하향 조정했다.

구형·중저가폰 공시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은 갤럭시노트7 출시를 앞두고 프리미엄 모델 판매에 지원금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는 내달 2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7을 공개한다.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만큼, 출시에 앞서 기존 프리미엄폰 재고를 털겠다는 것. 특히 갤럭시S6와 G4는 출시 15개월을 갓 지났기 때문에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공시지원금 규제액 상한액(33만 원)에서 벗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인하하는 대신 갤럭시S6와 G4에 보조금을 크게 늘려 갤럭시노트7 출시 전 재고 정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삼성전자 '갤럭시S6'. 사진제공 삼성전자

편의점 양적·질적 성장 多 잡았다

올해 2분기에도 편의점만 나홀로 조용히 웃었다. 장기화된 늪지형 불황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은 나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분기에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미래에셋대우증권에 따르면 2분기 국내 편의점 업체들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 선두 업체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양사는 여름 상품군을 중심으로 매출성장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담배 판매량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가운데 2분기에는 무엇보다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의 점포 출점을 통해 양적 성장을 지속했다는 분석이다.

BGF리테일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3390억 원, 6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21.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별도 매출액은 19.2%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 수가 15% 가까이 증가하며 매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2분기에만 점포가 400곳 이상 늘었다. 기존 점포의 매출은 7.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포 수가 증가해 점포당 매출액 성장률은 4.6% 수준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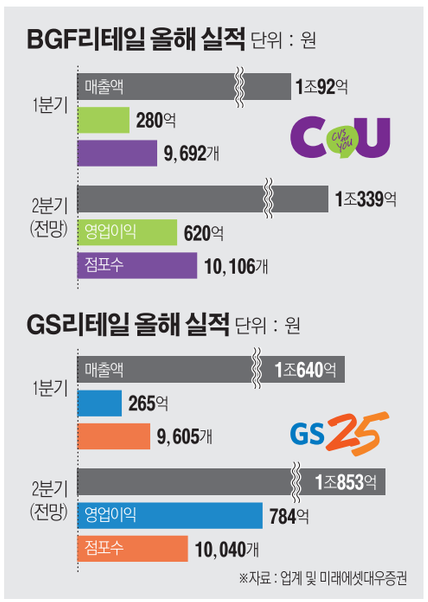
BGF리테일 관계자는 "2분기 역시 가맹점의 수익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질적 성장 전략이 경영성과로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점포별 맞춤 운영 방안을 통해 가맹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락, 디저트 등 PB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매출과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8525억 원, 784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18.2%, 12.6%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새로 생긴 GS리테일 편의점은 450여 곳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7%, 영업이익은 21.2%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여름 관련 제품과 도시락 등의 인기가 꾸준해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 등의 영향으로 신장률이 곤두박질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롯데마트의 작년 동기 대비 6월 매출 신장률은 0.2%에 그쳤으며, 홈플러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 작년 동기 대비 4.4% 역신장했던 이마트는 6월에 한 자릿수 신장률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선애 기자 lsa@



BGF리테일 2분기 영업이익 21%↑
GS리테일 전국 점포 450여곳 늘어
여름 상품군 중심으로 매출 성장
도시락·디저트 등 PB상품도 인기

식음료업계 '외식사업' 잘나가네

빙그레 '엘로우카페' 석달만에 월매출 3억
매일유업 '폴바셋' 전국에 68개 매장 열어
SPC는 '패션5'·'라그릴리아' 등 多브랜드

식음료업계의 외식사업이 좋은 성적을 내며 승승장구 중이다. 장기 불황과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로 고심이 컸던 식음료업계가 외식사업부문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매출 수익성에 체력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난 3월 보수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신사업을 선언, '엘로우카페'를 오픈했다.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지하 2층에 위치한 엘로우카페는 빙그레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카페 형식의 매장이다. 엘로우카페는 오픈한 지 석 달 만에 월 3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현대시티아울렛에 입점한 14개 카페 매장 중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다. 바나나맛우유를 활용한 쉐이크, 라테의 인기가 높아 매일 약 220개의 바나나맛우유가 사용되고 있다. 매일 투입되는 원유는 52ℓ에 달한다. 바나나맛우유를 디자인 소재로 삼은 MD상품도 인기다. 특히 바나나맛우유 키링은 누적 판매 수량이 4만 개에 달한다.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 2009년 '폴바셋' 1호점을 신세계백화점 강남역점에 열고 커피사업에 뛰어들었다. 식음료업계의 외식사업 확대 전략이 먹힐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폴바셋은 매장 수가 2013년 23개에서 지난해 68개로 늘었다. 매출액도 2013년 174억 원, 2014년 285억 원, 2015년 484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SPC는 외식사업 다각화로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이미 능력을 인정받았다. SPC는 2007년 프리미엄 디저트 갤러리 '패션5'를 시작으로 2008년 이탈리안 그릴 레스토랑 '라그릴리아'를 오픈했다. 2014년에는 복합외식문화공간 'SPC스퀘어'를 오픈해 '베라피자', '커피앳웍스', 브런치 카페 '라뜰리에'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음료업계의 외식사업 진출은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고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앞으로 차별성으로 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SK플래닛 11번가가 모바일 쇼핑에 걸맞게 BI를 변경했다. 사진제공 SK플래닛

11번가 새 BI 공개… "모바일 쇼핑 열린 디자인"

SK플래닛 11번가가 모바일 쇼핑에 걸맞은 새로운 BI를 15일 공개했다.

SK플래닛은 11번가가 상품 강화와 활발한 제휴를 통해 올해 e커머스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로고를 선포하고 새로운 고객 멤버십 내용을 담은 신규 캠페인을 선보이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새로운 로고는 PC보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기존 표지판 모양의 로고가 보다 심플해졌다. '11번가'라는 사명이 지닌 방향성과 쇼핑 공간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표지판 디자인을 글자 곳곳에 활용했다.

모바일 쇼핑 트렌드를 반영한 '열린 디자인'도 특징이다. 공간이 작은 모바일 앱에서도 고객들이 쉽게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로고 속에 상품 키워드나 이미지를 담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도록 독특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새 11번가 로고는 15일부터 11번가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물론 11번가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 공간, 마케팅·영업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김하늬 기자 honey@

'말랑말랑' 젤리시장 키우는 국내제과업계

5년새 38% 성장… 지난해 판매액 1000억
오리온 '젤리밥' 출시 1년새 1000만개 판매
롯데 '요구르트…', 세계 1위 '하리보' 제쳐



'말랑말랑' 젤리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수입과자 열풍을 타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젤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제과업계가 젤리 시장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젤리 시장은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 38%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젤리 판매액은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리온은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40%를 유지하며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최근 리뉴얼된 '마이구미'를 비롯해 '왕꿈틀이', '젤리데이'와 더불어 지난해 출시한 '젤리밥<사진>'까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젤리밥'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으며, 누적 매출 9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먹은 셈으로, 오리온 젤리 중 출시 1년 만에 1000만 개 이상 판매된 제품은 '젤리밥'이 처음이다.

롯데제과의 '요구르트젤리'는 세계 1위 브랜드인 곰모양 젤리 '하리보'를 끌어내렸다. '요구르트젤리'는 지난 5월 롯데제과와 세븐일레븐이 협력해 선보인 제품으로 출시 첫 주만에 30만개 이상 팔렸다. 1개월간의 실적은 세븐일레븐 전체 과자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다. 1개월간 판매된 '요구르트젤리'는 약 50만개에 달하며, 이는 '하리보 골드바렌 젤리'보다 6월 누적 판매금액 기준으로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롯데제과는 이같은 수요에 물량 공급이 달려 점포당 공급량을 제한하고 생산설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캔디도 말랑말랑해지고 있다. 2004년 출시 후 국내 캔디 시장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크라운제과 '마이쮸'는 워터젤리 형태로 변신해 '마이쮸 젤로'로 영역 확장에 나섰다. 일찍이 파우치 형태의 마시는 젤리 제품을 출시한 쁘띠첼은 과일·요거·슈퍼젤리 등으로 리뉴얼하고 대용량 제품을 출시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담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로 젤리의 인기가 급부상하며 2030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며 "아이들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제품이 젤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어두워지지 않는
새치 염색 –
세븐에이트

언제나 밝은 느낌 –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여성용

새치와 검은 모발의 편차가 적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두워지지 않아
처음 색상 그대로 밝고 빛나는 컬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 탤런트 차화연

NEW



4.5호(금빛 갈색) 4.63호(주황빛 밝은 갈색) 5.4호(진한 다홍빛 갈색)

|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호반건설 신사업 '아브뉴프랑' 삐걱

〈복합형 수익형 부동산〉

광교 2호점 1년 만에 공실률 25%
판교점도 3개월 새 3곳 계약 해지
시흥은계·하남미사 운영 계획 취소

상업시설 공급과다 수익률 크게 감소
리테일 관리운영 전문가 부재도 원인



지난해 오픈한 광교 아브뉴프랑 전경.
사진제공 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웠던 복합형 수익형 부동산 사업인 '아브뉴프랑'이 1호점 '판교 아브뉴프랑'을 시작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호반건설이 시공하고 직접 운영하는 100% 임대형 상가인 탓에 입점 상가들의 매출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15일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판교 아브뉴프랑'은 최근 3개월 사이에 입점 상가 3개가 계약을 해지, 공실률이 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호점인 '광교 아브뉴프랑'의 경우 공실률은 이보다 높은 25%를 상회한다.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상업시설의 경우 공실이 어느 위치에 발생했는지 역시 향후 해당 상업시설의 공실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판교 아브뉴프랑의 경우 상가 가운데 지점에서 공실이 발생해 앞으로 공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13일 방문한 '판교 아브뉴프랑'은 개점 초기와는 다르게 곳곳이 비어 있었다. 1층은 9일 철수한 A의류매장을 비롯해 P의류매장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이외에 입점한 매장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에 들어간 매장들도 눈에 띄었다.

상가 매출이 급감하면서 100% 임대운영하는 호반건설의 수익성 역시 악화됐다. 프렌차이즈 업체 위주로 상가를 구성, 임대 및 관리비 조건을 매출액 대비 10~15%대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즉 매출액의 감소가 임대수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아브뉴프랑' 1호점과 2호점이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호반건설은 시흥 은계 및 하남미사 내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시설을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하기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입주 예정인 '광명역 호반 베르디움' 역시 상가시설을 '아브뉴프랑'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미정'으로 바뀌었다. 업계에서는 '광명역 아브뉴프랑'의 경우 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호반건설이 '아브뉴프랑'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2013년만 해도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임대운영 모델로 손꼽혔다. 당시 이 건설사는 '판교 아브뉴프랑'의 성공을 토대로 수익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상가 직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3여 년 만에 '아브뉴프랑' 사업모델이 위기에 빠지면서 업계에서는 상업시설의 공급 과다와 전문 경영인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에 민감한 전문가가 필요했지만 아브뉴프랑의 경우 모체가 건설사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판교 아브뉴프랑의 경우 공급 당시에야 개성이 있어서 진행이 됐지만 유통 공룡인 현대백화점 입점 이후에도 시장 변화에 대처하지 않은 점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용인 처인구 '미분양 몸살'



5월 3299가구… 市 전체 미분양의 61%
수지·죽전 등에 비해 입지 경쟁력 떨어져
서울진입 1시간 이상 교통인프라도 미흡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미분양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주거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데다 교통여건과 배후수요 등이 받쳐주지 않아 미분양 소진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15일 경기도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의 5월 말 기준(6월 말 작성) 미분양 가구는 총 3299가구다. 같은 기간 용인시의 총 미분양 물량은 5328가구로 이 중 처인구

물량이 61%를 차지한다.

남사면에 위치한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한숲시티'가 1574가구로 가장 많고, 삼가동에 조성된 두산중공업의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가 1114가구로 뒤를 잇는다. 이어 △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344가구 △양우내안애 에듀파크가 182가구 △역북 지웰 푸르지오 81가구 △우미린센트럴파크 14가구 등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들의 4월 말 미분양은 3493가구로 한 달 동안 겨우 190여 가구가 팔렸다. 그나마 팔려나가는 대부분의 물량은 e편한세상 한숲시티에서 나온다.

처인구의 미분양 가구가 쉽게 줄지 않는 이유는 이 지역이 수지와 죽전 같은 용인시의 일반적인 거주 중심지에서 벗어난 데다 교통여건이 눈에 띌 만큼 받쳐주지 않아서다.

처인구 역북동의 경우 용인시청을 비롯한 용인행정타운,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 그나마 편리한 생활을 갖추고 있어 수요층이 두텁지만 그 외 지역은 이 같은 주거환경을 누리기 어려운 입지에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이 조성한 삼가동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은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단지가 지난해 분양을 진행한 반면 이 단지는 2011년 4월에 분양을 진행하고 2013년 준공한 후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지금까지 전체 1293가구 중 86%(1114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구도심인 삼가동은 별다른 수요층이 없는 지역인 데다 당시 분양가도 입지 대비 고분양가였던 것으로 평가됐다"며 "동탄 같은 경쟁지가 많아 실수요층을 뺏긴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등 직장가를 비롯한 서울 진입도 쉽지 않다. 에버라인 삼가역을 이용한 뒤 기흥역에서 환승,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해 강남역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 광화문 등 강북지역 직장가로 이동할 경우 시간은 30분가량 더 걸린다. 그나마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1시간 10분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e편한세상 한숲시티 역시 강남권 진입에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여기다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는 전체의 절반이 84㎡ 타입이고 나머지 물량은 120~153㎡ 규모의 대형 평수가 차지한다. 입지와 타입으로 볼 때 미분양 가구 소진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대우건설 신임 사장, 조응수·박창민 '2파전' 압축


조응수
전 대우건설 부사장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

조응수 전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과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이 대우건설 차기 사장 후보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차기 사장에 지원한 30여 명의 지원자 중 전날 5명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PT) 등 면접을 진행했다. 사추위는 평가를 통해 조 전 부사장과 박 상임고문 2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했다.

최종후보에 오른 조 전 부사장은 대우건설 사장에 재도전하는 모양새다.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1977년 대우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해외사업담당 임원을 거쳐 2007년 해외영업본부장을 맡았다. 대우건설을 대표하는 해외 플랜트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박 상임고문은 1979년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해 건축·영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산업개발의 사장을 지냈으며, 한국주택협회 회장직을 오랫동안 맡아 주택분야와 관련한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추위는 다음 주 중 압축된 2명 가운데 1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임시주주총회는 내달 초 개최된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박상우 LH 사장, 미사지구 찾아 하자처리 실태 점검

"입주민 주택품질서비스 개선 노력"


박상우(오른쪽) LH 사장이 미사 16단지 주민공동시설에서 입주자가 하자처리 만족도를 평가하는 '입주자역평가제도'를 시현하면서 입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직접 듣고 있다.
사진제공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박상우 사장은 13일 하남미사지구 하자처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CEO가 하자보수 현장을 직접 점검해 고객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하자처리 과정을 확인해 전 직원의 하자보수 및 품질관리에 동참을 유도하고 입주민 주택품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수도권 대표지구로 공공분양 아파트 비율이 높고 올해 입주물량이 집중돼 있는 하남미사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역평가제도 등 다양한 하자 저감 방안의 현장 적용실태를 점검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박 사장은 미사지구 입주 현황 및 하자 접수·처리 상황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에 입주 완료한 미사지구 16단지 주민공동시설에서 입주민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고객 불만을 듣고 하자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주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하자 처리에 대한 현장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후 박 사장은 LH 임직원, 시공사 직원 등 하자 처리 담당자에게 "하자는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고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포켓몬 이어 이번엔 '동키콩'… 3040세대 추억몰이 계속된다

닌텐도 옛날 게임 '부활' 마니아 '심쿵'

1980년대 대히트 가정용 게임기
'NES 클래식' 크기 대폭 줄여
미국서 11월 11일 재출시 예정
TV 연결로 인기 게임 30종 즐겨



증강현실(AR) 기반의 모바일 게임 '포켓몬 GO'로 세계 게임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닌텐도가 이번엔 1980년대를 풍미했던 가정용 게임기 '패밀리 컴퓨터(NES)'를 부활시킨다. 포켓몬 GO 인기의 여세를 몰아 19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동키콩'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세대의 향수를 자극해 새로운 게임 수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

닌텐도 미국 법인은 14일(현지시간) 1980년대에 대히트한 가정용 게임기 패밀리 컴퓨터를 현재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NES 클래식 에디션'을 오는 11월 11일 미국에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바일 게임 포켓몬 GO의 폭발적인 인기로 닌텐도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NES 클래식 에디션도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닌텐도가 11월에 선보일 NES 클래식 에디션은 외관은 오리지널과 다름 없지만 크기는 한 손에 들어갈 정도로 대폭 줄였고, 현대의 TV에 대응한 HDMI 케이블을 표준으로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동키콩'과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등 왕년의 인기 게임 30종을 미리 설치해 TV에 연결하기만 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가격은 59.99달러(약 6만 8148원)다.

닌텐도는 1985년 미국에서 패밀리 컴퓨터를 NES라는 이름으로 출시해 일본에서의 인기를 능가하는 붐을 일으켰다. 당시 미국 게임 팬들을 매료시킨 건 동키콩과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였다. 이들 캐릭터는 당시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던 닌텐도의 구원투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닌텐도는 막 전자 게임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아타리·다이토·남코 같은 벤처 기업들이 첨단 전자 게임을 쏟아냈지만 닌텐도는 다이토의 '스페이스 인베이더'와 남코의 '갤럭시안'을 모방한 '스페이스 피버'와 '레이더스 스코프'를 출시한 게 고작이었다.

게임 마니아들은 닌텐도의 신작 게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닌텐도는 게임 사업 부진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 게임기 보관 창고 임대료도 내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

이에 초심으로 돌아간 닌텐도 게임 판도를 흔들 야심작을 내놨다. '미녀와 야수'에서 착안한 동키콩과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그것이다. '퐁', '팩맨', '스페이스 인베이더' 같은 기존 게임들은 스토리가 없었다. 닌텐도는 새로운 게임에 스토리를 넣고, 캐릭터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닌텐도의 이같은 획기적인 시도에 팬들도 열광했고, 동키콩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만 아케이드용 동키콩은 1년 만에 5만대가 팔렸다.

현재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포켓몬 GO 열풍도 동키콩과 같은 맥락이다. 모바일 게임이 대세임에도 콘솔 게임을 고집하다 침체에 빠진 닌텐도에 포켓몬 GO가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 포켓몬 GO는 출시 후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았고, 회사 주가는 나흘 만에 60% 가까이 뛰는 등 증시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닌텐도의 레지 필스-에임 사장은 NES 클래식 에디션 출시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대의 팬에게 애시당초 왜 닌텐도의 포로가 됐는지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美, 폭스바겐 리콜 계획 '퇴짜'

환경당국, 다른 보상 방법 요구… 배상액 더 늘어날 듯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이 10개월째 계속되는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환경 당국이 폭스바겐이 제출한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한 리콜 계획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13일(현지시간) 폭스바겐 경영진과 변호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리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환경청(EPA)과 폭스바겐 측과 함께 해결책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환경청 대변인은 폴크스바겐의 제안이 부적절하다는 CARB의 판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CARB는 지난 2월 폭스바겐이 첫 리콜 계획을 제출한 이후 사측과 계속 협의를 했지만 1차 제안은 불완전했고, 지난 6월 제출한 추가 데이터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리콜 대상은 3000cc 디젤 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셰 등 총 8만5000대다. 이 중 캘리포니아가 1만6000대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환경당국이 폭스바겐 측의 리콜 계획을 거부함에 따라 3000cc 차량 환매 등 다른 보상 방법이 요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 있는 환경보호국(EPA) 저온테스트실험실에서 폭스바겐 SUV 투아렉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만약 이러한 전망대로 폭스바겐이 문제 차량을 되사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된다면 회사는 조작 스캔들 수습비용이 20억~30억 달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6월 48만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총 147억 달러(약 17조 4000억원)를 지불하기로 미국 정부 및 소비자 측 소송 대리인들과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배상안의 배상 대상은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cc 디젤 승용차로, 3000cc 승용차들은 제외돼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브렉시트 쇼크 주춤하자… 英 중앙은행 "금리동결"

시장 0.25%P 인하 예상했지만
금융정책회의 0.50% 유지 결정
자산 매입프로그램도 현행 유지
부양책·금융완화 내달로 넘겨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시장의 기대를 뒤로하고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영란은행은 14일(현지시간)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0.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9명의 정책위원 중 8명이 찬성했다. 1명의 위원만이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자산매입 한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현행(3750억 파운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고자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앞서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인 지난달 31일 "경제 성장 전망이 악화됐다"면서 "올여름 일부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란은행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로 내릴 가능성을 80%로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영란은행은 즉각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보다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 행동에 나서는 쪽을 택했다. 즉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수집해 이를 분석한 다음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는 것.

실제로 영란은행은 "위원회가 다양한 양적 완화 수단들과 이 수단들의 조합을 논의했다"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들의 정확한 규모는 향후 나올 새로운 경기지표들에 기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8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이 완화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영란은행은 회의록에서 "대다수 위원이 통화정책이 8월에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 전망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담은 영란은행의 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내달 4일 발표된다. 이에 따라 8월 영란은행은 금리인하와 자산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의 새 내각 구성으로 재무장관이 교체되는 시기를 감안해 영란은행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영국 재무장관에 필립 해먼드가 조지 오스본의 후임자로 지명됐다.

이날 유럽 주요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했다. 영란은행이 예상을 깨고 금리를 동결했지만 내달 완화책 도입을 강력히 시사한 영향이다. 이날 달러 대비 파운드 가치는 한때 1.35달러까지 급등하며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치러진 6월 말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WSJ "美 기준금리 연말까지 동결"

기업·학계 조사 60명 중 절반
브렉시트 이후 경기 불확실성
경제지표 불안·대선 영향 꼽아
9월 인상 예상도 23%로 줄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12일까지 기업과 학계 이코노미스트 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이 "12월 13~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고 답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 바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 고용시장의 혼재된 신호 등을 이유로 이 같이 답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달 조사 때만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친 응답률은 7.8%에 그쳤다. 당시 응답자 대부분은 올여름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의 채드 모트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수개월간 경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면 FOMC가 12월, 더 나아가 내년까지 정지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이달 26~27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단 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조사의 33명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9월 금리인상을 전망한 이코노미스트도 전체의 약 23%로, 6월의 30%에서 낮아졌다.

이코노믹아웃룩그룹의 버나드 바우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고용지표 변동이 너무 심해 연준이 경제지표에 의존해 정책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의 대부분은 브렉시트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래는 영국의 EU 탈퇴가 모두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컸었다. 네이션와이드 인슈어런스의 데이비드 바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려면 브렉시트보다 더 큰 충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EU, 구글 광고 수입도 제동

"자사 비교 구매 서비스 혜택 부여"
매출 90%… 법 위반땐 타격 커

유럽연합(EU)이 미국 구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가 구글에 세 번째 경고장을 보냈다고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에 새로 표적이 된 건 구글의 인터넷 광고 사업이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 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고안해 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구글에 다른 업체와 경쟁하고 혁신하는 것을 부정하는 권리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EC의 예비조사에서 구글이 일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의 비교 구매 서비스에 과도하게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비교구매 서비스란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가격과 품질, 배달 등의 조건을 비교한 후 물건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구글의 광고 수입은 673억 달러로 매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EC가 이번에 지적한 인터넷 광고 사업의 문제 행위 중 일부는 이미 개선돼 안드로이드 문제에 비해 영향은 작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구글은 장래를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베스타거 위원은 14일 기자 회견에서 여행 및 지역 정보 검색, 뉴스나 사진 취급에 대해서도 반독점 위반 행위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전선을 더욱 넓힐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광고 사업은 구글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반독점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EU 내에서 우호적이었던 영국의 탈퇴로 EC가 한층 더 강하게 구글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수경 기자 sue6870@

佛 대혁명기념일 니스 축제서 트럭 테러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혁명기념일 공휴일인 14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트럭을 몰고 군중에 돌진하는 테러를 일으켜 최소 75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 트럭 운전자는 사살됐다. 사진은 현지 경찰과 감식반원들이 문제의 트럭 옆에 서 있는 모습. 니스/로이터연합뉴스

인민은행, 금융감독 기능까지… 권한 세지나

中 정부, 증시 혼란·위안화 평가절하로 떨어진 신뢰 회복 나서

중국 정부가 금융감독 시스템 전면 정비에 나서면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증시 혼란과 갑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끌어올리고자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 기능을 인민은행 밑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은행은 물론 은행과 증시 보험을 각각 총괄하는 관리감독위원회가 별개로 행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고칠 초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초안에서 논의되는 옵션 중 하나가 바로 관리감독 기능을 인민은행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좀처럼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당초 시진핑과 다른 중국 지도자들은 지난달 금융감독 시스템 초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의견 충돌로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한 소식통은 덧붙였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DRC)의 장청후이 금융리서치 대표는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방법을 놓고 논쟁은 여전히 격렬한 상태"라고 말했다.

에스와 프라사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금융기관 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복잡한 일"이라며 "특히 중국과 같은 '명령경제(command economy)' 국가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중국 정부가 증시 혼란을 잠재우고자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견실하고 효율적인 규제 틀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변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이재용 '닮고 싶은 회사' IBM CEO에 자문 구했나

로메티 CEO와 '선밸리 회동'
AI·클라우드 서비스 등 논의
왓슨 전 회장 자서전 즐겨 읽고
평소 'IBM 같은 회사 되자' 강조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지니 로메티 IBM CEO와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블룸버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니 로메티 IBM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5~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앨런앤코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지니 로메티 CEO와 만나 AI(인공지능)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이 부회장이 로메티 CEO와 대화하며 나란히 걷는 장면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IBM은 이 부회장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회사다. 이 부회장은 토마스 왓슨 주니어 전 IBM 회장의 자서전 'IBM, 창업자와 후계자'를 읽고 평소 경영진에 'IBM 같은 회사가 되자'고 강조해왔다.

업계는 양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비슷한 만큼, 두 사람이 회동에서 IBM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와 플랫폼, 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M&A(인수·합병) 및 R&D(연구개발)에 집중하며 하드웨어 중심 기업에서 종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IBM은 2005년 중국 레노버에 PC 사업을 매각한 뒤 기업·의료·금융 분야 IT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 의료·금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콘퍼런스 기간 글로벌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7월 초 휴양지 선밸리에서 열리는 이 콘퍼런스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 앤드 컴퍼니가 1983년부터 개최하는 비공개 행사로, 글로벌 미디어·IT, 금융,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올해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등이 참석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하이비전센터' 개원식에서 정몽윤 회장과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인보험부문장 권병태 상무, 박찬종 대표이사, 강순모 하이플래너, 정림건축 임진우 대표, 정몽윤 회장,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 이철영 대표이사, 이경희 하이플래너, 안정용 노조위원장 순. 사진제공 현대해상

"양질의 교육으로 선도 보험사 거듭나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연수원 '하이비전센터' 개원식서 강조

"보험사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환경 속에서 선도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이 필수다."

14일 현대해상 연수원 하이비전센터 개원식에 참석한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선도 보험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원식에는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 이철영·박찬종 대표이사, 임직원·하이플래너와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 정림건축 임진우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신축 연수원은 시설 노후화와 수용인원이 부족했던 구 연수원을 철거하고, 2014년 3월부터 약 27개월 동안 신축 공사를 실시해 새롭게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300명 수용 규모의 대강당 '아산홀', 스포츠 연계 교육이 가능한 실내 체육관 '하트홀', 현대해상 역사관 '하이비전홀' 및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 등이 있다. 숙소는 284명을 동시에 수용 가능하며 휘트니스센터, 탁구장, 북카페 등의 편의시설도 배치됐다.

박규준 기자 abc84@



박성택(왼쪽) 중기중앙회장과 박창명 병무청장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특기병 전역자 취업 지원
중기중앙회·병무청 맞손

중소기업중앙회와 병무청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 무자가 입영 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뒤, 전역 후 취업을 지원받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기술경력을 공유하고, 각 조합을 통해 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전역자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전경련 회장〉

허창수 "한·스위스 헬스케어·핀테크 등 신산업 협력"

전경련, 스위스 대통령과 오찬 간담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이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스위스 대통령 주최 기업인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요한 슈나이더-아만 스위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스위스 대통령 주최 기업인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세계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은 활발한 투자 교류, 기업 간 협력으로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스마트 헬스케어, 핀테크,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스위스 양국의 강점을 살린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스위스 방문 시 전경련은 스위스경제인연합회와 '한·스위스 경제인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스위스 원천과학기술과 한국의 ICT 기반 제조역량을 결합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제3국 공동 진출, 한·스위스 산업인력 양성 협력 강화 등 유관기관과 기업 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당시 체결했다.

전경련은 제약, 생명과학, 금융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가 우리 기업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산지 비즈니스 산업에서 스위스는 최고의 롤 모델"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위스 바이오 기술과 한국의 ICT 기술이 만난다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허 회장을 비롯해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유정준 SK E&S 사장이 참석했다. 스위스 측에서는 마리 가브리엘 이나이헨 플라이쉬 연방경제정책청장, 외르그 레딩 주한스위스대사, 하인츠 카러 이코노미스위스 회장, 한스 헤스 스위스기계전자산업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무협 70주년…전·현직 회장 한자리에

한국무역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전직 회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희범 26대 회장(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29대, 현재), 김재철 23~25대 회장(현 동원그룹 회장), 사공일 27대 회장(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한덕수 28대 회장(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무역협회

佛 마르세유영화제 '관객과의 대화' 참석한 홍상수 감독

'불륜설' 질문엔 옅은 미소만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이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홍 감독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27회 마르세유 국제영화제'의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다소 피곤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행사장에 나선 홍 감독은 여유롭게 웃으며 자신의 영화에 대해 설명했고, 관객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했다.

특히 이날 프랑스 여배우 이사벨 위페르가 출연한 홍 감독의 2011년 영화 '다른 나라에서' 상영 직후 대화 시간이 마련돼서인지 위페르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그는 위페르와 한국에서 막걸리를 함께 마신 일화를 소개하며 위페르가 뛰어난 배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관객이 "홍 감독의 영화에는 왜 여자 이야기가 많은가?"라고 질문하자 홍 감독은 "내가 남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웃으면서 답하기도 했다.

행사 때는 김민희와 홍 감독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영화제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관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객과의 대화가 끝난 후 "김민희와 관계가 사실이냐"는 국내 취재진과의 질문에는 옅은 웃음을 보였을 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그는 영화제 진행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다.

앞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난 홍 감독과 김민희는 최근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아직 두 사람은 외국에 체류 중이며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영화 '거미 여인의 키스' 엑토르 바벤코 감독 별세

영화 '거미 여인의 키스'로 유명한 엑토르 바벤코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70세.

14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은 바벤코 감독이 전날 밤 10시 50분께 심폐 정지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상파울루 시내 시리우-리바네스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1946년 2월 7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지만, 19세에 브라질로 이주해 1975년부터 영화 감독으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2년 뒤인 1977년에는 브라질 국적을 취득했다.

바벤코의 작품 가운데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거미 여인의 키스'(1985년)다. 감옥에 갇힌 정치범과 동성연애자로 설정된 두 남성이 서로의 삶을 이



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아웃사이더의 소외된 삶이 정치·경제·사회적인 상황과 긴밀히 연관돼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바벤코는 브라질 사상 최악의 교도소 수감자 집단살해 사건인 '카란지루(Carandiru) 학살'을 다룬 영화 '카란지루'로 2003년 칸 영화제 공식경쟁 부문에 출품되기도 했다. 카란지루 학살은 1992년 10월 2일 경찰이 상파울루 시 인근 카란지루 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면서 수감자 1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인사

◆법무부 〈승진〉 ◇보호직 공무원 4급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김용수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정렬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흡 〈전보〉 ◇4급 △대전소년원장 오영희 △청주소년원장 김성곤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박재봉 △인천보호관찰소장 이우권 △전주보호관찰소장 최우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김태호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조성민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박준재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안병경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배종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배현정 ◇과장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이승규 ◇과장급 신규 임용 △고객지원담당관 나지원

◆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남부지방산림청장 남승희 ◇과장급 전보 △중부지방산림청장 진선필 △대변인 이준산 △산림자원과장 조준규 △산림복지시설사업단 기획과장 김원수 △홍천국유림관리소장 황인욱

◆IBK기업은행 ◇부행장 승진 △기업고객그룹 강남희 △충청·호남그룹 양춘근 ◇부행장 전보 △경영지원그룹 장주성 ◇지역본부장 승진 △남중지역본부 김학은 △중부지역본부 박상온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동·강원지역본부 오혁수 △인천지역본부 방군섭 △경수지역본부 배용덕 △영업부 정재섭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고객부 양성관 △문화콘텐츠금융부 이정환 △본부기업금융센터 김진악 △점포전략부 조성수 △퇴직연금부 김재덕 △신탁부 이상직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박노규 △강서중부여신심사센터 최광수 △강서중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시성철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강용주 △인천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김종호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경홍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전성홍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유용호 △업무지원부 유경철 △IT정보부 소지섭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강인정 ◇본부 부서장 승진 △종합기획부 대외협력팀 김동석 △홍보부 디자인경영팀 안신정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호계동기업금융 윤보한 △반월중앙기업금융 박용환 ◇지점장 전보 △강남구청 임한구 △강남대로 이천희 △강남역 오창석 △교대역 김창경 △논현역 최병철 △반포 이영이 △삼성동 정성영 △압구정동 최돈희 △언주역 이창한 △학동역 이병강 △가락동 김지철 △강동첨단 이재열 △강일동 김원유 △길동 이점호 △남양주 김광현 △동해 강세웅 △방이역 김영주 △속초 주범삼 △쌍문역 전상묵 △안암동 신우준 △공항동 배은한 △등촌역 이주호 △마포도화 서이동 △목동사거리 임형수 △삼정동 여경철 △소사 김정수 △역곡 김주식 △가산디지털중앙 정필안 △가산패션타운 공재웅 △구로삼성IT 윤재민 △신길동 도병수 △양평동 김종록 △여의도IFC 이종민 △명학 박진수 △신림동 이창용 △안양 김동섭 △김포 김희섭 △김포통진 조황연 △북아현동 박창호 △연희동 이우현 △응암동 김태식 △일산웨스턴돔 김복환 △일산주엽 남지완 △LG광화문 윤정걸 △남대문 변문수 △성수2가 황귀환 △신당동 이호룡 △약수동 길영수 △을지로 이원호 △청계5가 강용구 △갈산역 남춘희 △검단 소순동 △검단산업단지 김낙현 △인천 김규필 △인천서부산단 박덕환 △인천원당 박찬길 △주안 이윤호 △수지동천 이순철 △반월중견기업센터 김정영 △경기테크노파크 한도희 △반월 문장환 △반월중앙 우치환 △반월하이테크 전영헌 △상록수 이동록 △시화옥구 정규만 △신고잔 김길수 △안산 유재규 △안산중앙 이재성 △영통 최영식 △용인서천동 김중용 △평택안상덕 △화성발안 박청준 △화성병점 변상남 △화성정남 이영룡 △대저동 정장호 △부평동 양윤근 △영도 이동하 △거제 김영조 △김해 전길태 △동마산 박찬일 △울산PB센터 여승현 △금사공단 권만근 △동울산 정윤호 △마린시티 성영주 △센텀시티 하주봉 △울산호계 신경호 △경산 윤병태 △경산공단 마영수 △대곡 변성환 △성서 진한섭 △외동공단 유병규 △대전중앙 최익환 △아산 정구영 △아산배방 임태순 △오송 정현관 △오정동 강한모 △유성노은 길한섭 △익산 신완호 △정읍 한상옥 △안동 손영철 △왜관 송병창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윤홍달 ◇지점장 승진 △창원PB센터 황남진 ◇드림기업지점장 전보 △청주 정금자 ◇드림기업지점장 승진 △구로동 안기환 △평촌 배희연 △김포대곶 박태건 △곤지암 이무일 △성남하이테크 노경수 △판교테크노밸리 정택호 △동시화 정봉우 △반월 오종화 △반월서 최형호 △시화중앙 임형택 △시흥 이진무 △사상 신재우 △마산 김종철 △전주 박승래 △대구유통단지 금인섭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마곡발산역 김종익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정성희 김진규 유일광 조정애 박시정 백기영 유진호 강병모 이홍균 이희국 김준열 이현섭 황병철 김경필 이명삼 엄경호 한지수 김동수 강희전 송하운 김광권 김재국 이학주 곽종욱 김미숙 김형곤 손대협 윤용운 이조영 홍승부 손경중 손진현 이혜숙 김재만 이주헌 김기운 차상은 이용주 성시훈 남성종 권진혁 안인석 구문호 조영호 서임주 성동록 안점호 이호동 박진희 원유진 박명배 김진형 김원섭

◆대구대 △교학부총장 조희금 △교무처장 권욱동 △학생행복지원처장 김영표 △산학연구처장 윤재웅 △기획처장 이영우 △국제처장 이성화 △교무부처장 및 교육개발원장 김상호 △기획부처장 김동윤 △산학협력단 부단장 박세현 △사무처장 김형진 △사무부처장 및 영덕연수원장 이기동

부음

▲손광주(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씨 장인상 = 13일 대구 경북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53-200-6141

▲이정민(안산대학 재단 이사·전 배화여중 교감) 씨 부인상, 형규(미국 조지아UMC 목사)·은경(성남시향) 씨 모친상, 전병우(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장)·강신철(육군 대령) 씨 장모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3410-6915

▲남궁훈(신한금융투자 강남영업본부장) 씨 장모상, 안호숙(우리은행 도봉지점 과장) 씨 시모상 = 14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2-3779-1918

▲우병기(한국하이델베르그 기술부 근무)·병국(CNB인터내셔날 물류팀 근무)·병선(현대상선 홍보담당 과장) 씨 부친상, 조진호(법무부 교정국 근무) 씨 장인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02-2258-5940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2화 그녀는 분식회계 중 ⑪

박 과장도 오피스텔에 올 때마다 입는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이다. 원한다면 복숭아를 씹으면서 이혜진을 눕힐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느긋한 표정으로 이혜진을 바라봤다.

이혜진은 난생처음으로 남자의 품에서 아침해를 봤다. 햇살이 이렇게 눈부신 줄은 몰랐다. 커튼을 하얗게 물들이고 방으로 들어온 햇살은 책상을 뽀얗게 물들이고 있다.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이며, 연필꽂이, 몇 권의 책이 사진처럼 아름답다.

"일어났어?"

박 과장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이혜진을 끌어당겼다. 이혜진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혜진은 박 과장의 거친 입술이 젖가슴에 와 닿는 순간 입을 턱 벌렸다. 박 과장의 손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했다. 이혜진은 맥이 풀린 얼굴로 턱을 한껏 치켜올린 채 이를 악물었다.

이것이었던가. 박 과장의 손은 마법사의 손과 같았다. 손끝이 스쳐가는 곳마다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은 전율이 입을 통하여 거칠게 튀어나왔다.

박 과장의 입술이 이혜진의 둥그스름한 어깨



에 질퍽한 타액을 묻혀 가면서 목덜미로 옮겨갔다. 이혜진이 목을 비틀며 신음을 내지 않으려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익숙한 무게의 감촉이 배를 뜨겁게 누르기 시작했다.

이혜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가 아닌 남자의 품에서 아침을 맞은 것만이 아니다. 모닝 섹스도 처음이다. 모닝 섹스가 주는 쾌감은 모텔에서 소나기 섹스를 할 때와 차원이 달랐다.

모텔에서의 소나기 섹스가 소주 10%에 맥주 90%라면, 내 침대 위에서의 모닝 섹스는 양주 50%에 맥주 50% 수소폭탄주다. 박 과장이 아침의 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불기둥을 유감없이 흔들 때마다 이혜진은 박 과장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지 못해 파드득거렸다.

이혜진은 다른 연휴 같았으면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남자. 전화를 걸고 싶어도 전화를 할 수 없는 남자. 커피를 타 주고 싶어도 커피를 타 줄 수 없는 남자가 그리워서 원망하고, 원망이 지나치면 단교를 하고, 단교의 도를 넘어서면 회사에 사표를 내겠다며 소주잔을 홀짝거렸을 것이다.

이번에는 달랐다. 꿈 같은 2박3일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다. 이혜진은 박 과장과 함께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어보지 못했다. 백화점에 가서 박 과장의 속옷을 구입하지 못했고, 운동복을 입고 나란히 아침 운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어머, 혜진 씨 연휴 때 피부만 다듬었나 봐. 완전 빛이 나네. 빛이 나."

"연휴 때 좋은 일 있었어요?"

연휴 기간 엔도르핀을 충분히 흡수한 이혜진은 사무실을 환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시샘하던 여직원들은 마음속으로 질투의 칼날을 갈면서도 도저히 칭찬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저 같은 애가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대전 집에 가서 푹 쉬었어요."

"하긴 충분한 휴식만큼 좋은 화장품이 없다는 말은 들었어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의 소감은 "학원도 안 가고 교과서하고 EBS 방송만 들었어요"라는 말이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내고 족집게 학원에 다닌 학생들은 모두 돌머리라는 뜻이다.

"자기도 아까 그년이 하는 말 들었지?"

"그년?"

"자금부에서 그년이 몇이나 되겠어. 딱 그년밖에 없지.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말이나 못 하면 밉지나 않지. 난 아침에 한 시간 동안이나 마사지를 하고 출근했어. 그냥 쉬고 있어도 얼굴이 예뻐진다면 우린 뭐야?"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라구. 얼굴 좀 예쁘다고 우리를 반쯤 베어 먹은 쉰 깍두기로 생각하나 봐."

여직원들은 어머머! 기가 막혀, 라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이혜진을 갈기갈기 찢었다.

"내가 오줌 누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냐."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뒷말을 하던 여자들이 놀라 입을 다물었다. 화장실 안에서 나온 여직원이 점잖게 끼어들었다.

"무슨 방법?"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야."

"얘 좀 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이혜진 같은 애가 남자를 알면 더 예뻐진다는 거 몰라?"

"듣고 보니 그러네. 영화배우 이영애도 결혼하고 더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

"가만! 가만! 그년 혹시 연휴 동안 남자하고 여행 다녀온 거 아냐?"

자금1과의 여직원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승승장구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앞뒤 안 재보고 매수를 했다가는 깡통 찰 수도 있다.

경제라는 것이 상승곡선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기업도 악재를 만날 수도 있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곁을 무심히 지나쳤다가는 산불이 나서 오도 가도 못한다.

"에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못 들어봤어? 이혜진 같은 년이 호박씨 까는 거 숱하게 봤어."

자금1과의 여직원이 얼른 문 앞으로 갔다. 문밖을 살펴보고 나서 숨 가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긴, 내 친구 중에 선희라는 애가 있거든. 정말 예뻐. 근데 너무 내성적이라 남자 손목도 안 잡아 본 애거든."

한국전쟁의 변곡점 '크로마이트 작전'

영화, 역사에 말 걸다



박준영

(주)크로스컬처 대표

드디어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1982년에 만들어진 '오, 인천'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이 영화는 당시 할리우드의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흥행에도 대참패를 거두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번 '인천상륙작전'은 한국 유명 배우와 할리우드 스타 리암 니슨이 콜라보했다. 이달 말에 개봉한다니 관심이 높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이다. 아득한 옛일 같지만 동족이 죽고 나라가 폐허가 된 지 70년도 채 못 되는 세월이다. 역사라는 긴 호흡을 통해 보자면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

그동안 상전벽해도 무색할 정도의 외형상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은 건 아직도 적대적 두 체제가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휴전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이달 말 개봉하는 대작 '인천상륙작전'

한국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전쟁일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년 전 한국을 방문하여 주한미군들과 어울린 자리에서 "한국전쟁이 무승부였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자유에 대한 신념을 지켜냈고 지금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을 보면 분명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베트남전과는 다르게 한국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몇 해 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깜짝 놀랄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개탄한 적이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6·25전쟁이 북침인가 남침인가'를 물어봤을 때 67%가 북침이었다고 답변해 당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내막을 들여다보니 북침과 남침의 개념에 대한 혼동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즉 북침을 '북한의 침략'으로 이해한 청소년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진중권은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어쨌든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이 문화공동체를 형성한 이래 동족 간에 처음 피를 본 사건이다. 또한 자칫 적화될 수 있었던 전쟁이기도 했다. 새벽에 기습 남침으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 왔고 대통령은 비밀리에 일본으로 정부를 옮기는 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 위기를 역전으로 이끈 것이 바로 인천상륙작전이다. 작전명 'Operation Chromite'.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진두지휘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을 마지노선으로 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이 작전 한 방으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켜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 전쟁사에 남을 기념비적 전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니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리암 니슨이 싱크로율 높은 맥아더 장군 역을 맡았고 이정재, 이범수가 각각 국군과 인민군 역할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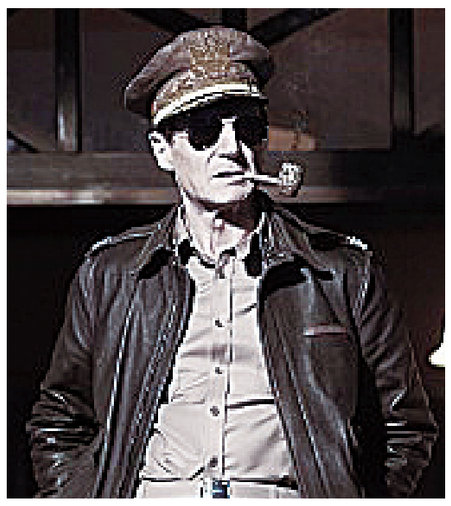
맥아더 장군에 대한 평가는 이념의 잣대에 따라 극과 극이다. '전쟁광', '분단의 원흉'이라 하여 인천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 한 극우단체도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민족을 구한 영웅'이라 칭송했다.

필자는 맥아더 장군 하면 2002 월드컵 영웅인 히딩크 감독이 떠오른다. 히딩크는 대한민국 축구팀에 승리를 안겼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목표를 추구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이후엔 조용히 떠나갔다. 맥아더 장군은 전쟁의 프로였고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관으로 차출된 용병이었다. 그 역시 전쟁에서 최선을 다했고, 떠나갔다.

전쟁은 일단 이기고 보는 게임이라고 봤을 때 그에 대한 평가는 그리 야박할 필요는 없다. 전쟁 중에 지도자가 한발 떨어져 한반도를 보고 전황과 전술을 역발상하여 모두가 반대한 작전을 용기 있게 밀어붙여 성공시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양을 버린 선조, 한강철교 끊은 이승만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왜 발발하였고 한국전쟁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자. 꿈에 그리던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쟁취한 독립이 아니었다. 그래서 강대국의 분할통치를 감수해야만 했다. 뒤늦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소련은 한반도에 진주한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소련은 빠른 속도로 남하하기 시작했고 당황한 미국은 38선을 긋고 더 이상의 남진을 허용치 않는다. 이후 미국·소련 간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분단의 선이 만들어진다. 각각의 정부가 남과 북에 수립되고 북한은 민족해방전쟁을, 남한은 북진통일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맥아더를 연기한 리암 니슨(왼쪽)과 맥아더의 지시로 대북 첩보작전에 투입돼 북한군으로 위장한 해군 대위 역 이정재.

인천상륙 직전 교란전을 펴기 위해 포항 옆 장사라는 지역에 상륙대를 선발대로 보낸다. 여기에 투입된 군인 대부분은 대구·경북 지역의 학도병이었다.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도 포함된 '어린' 부대였다. 장사항에서 전투를 벌인 학도병은 전원이 전사,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에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1980년대 남한 내 극좌파에 의해 북침설이 제기되기도 했고 이후 진보 학자 간에도 수정주의적 연구 경향으로 남침유도설이 그럴싸하게 유포되기도 했다. 미국 전략 방어선에서 남한과 대만을 제외한 애치슨 선언과 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의 재빠른 참전 결정 등이 남침 유도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러시아의 비밀문서나 미국 국무부의 자료로 볼 때 북침설은 전혀 가능성이 없으며 남침 유도설 역시 근거 없는 학문적 상상이었음이 정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어느 쪽이 먼저 총을 쐈는가보다는 전쟁의 원인과 성격, 전쟁으로 얻은 결과를 명확히 정리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다.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되자 이승만 정부는 서울은 절대 사수할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고 방송을 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한강철교를 폭파해 수많은 피란민들의 목숨을 앗았다. 임진왜란 때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간 선조와, 국민들에게 서울을 지키겠다고 말한 후 한강철교를 폭파해 퇴각길을 연 이승만 정부가 무엇이 다른가.

인천상륙작전은 부산까지 떨어질 상황에서 보여준 신의 한 수였다. 낙동강전투 중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보급로가 길어진 것을 간파한다. 그래서 후면을 치면서 보급로를 끊고 낙동강에서 치고 올라간다는 기본 전략을 세운다. 원산 남포 해주 등 몇 군데 후보지가 떠오르지만 북한마저도 간과했던 인천을 공격 지점으로 결정한다.

피실이격허(避實而擊虛), 즉 적이 방심하고 있는 곳을 치자는 게 맥아더 장군의 생각이었지만 모든 참모가 결사반대한다. 인천은 수로가 좁아 군함 이동이 어렵다는 점과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작전이 조금만 늦춰져도 물이 빠져 버려 낭패를 본다는 이유였다. 맥아더 장군은 전략적, 심리적, 정치적 이유를 들어 서울을 신속하게 탈환코자 하며 그 최적의 장소를 인천으로 찍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을 맥아더 장군은 뚝심으로 밀고 나간다. 인천상륙 직전 교란전을 펴기 위해 포항 옆 장사라는 지역에 상륙대를 선발대로 보낸다.

9월 14일, 장사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여기에 투입된 군인 대부분은 대구·경북 지역의 학도병이었다.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도 포함된 '어린' 부대였다. 772명의 학도병을 태운 LST전함은 인천상륙작전 하루 전날 장사항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북한군의 시선을 장사항에 묶어 두었다. 이 틈을 타 9월 15일 밤 10시 인천에 7만5000명의 연합군과 261척의 함정을 투입, 인천을 함락한다. 장사항에서 전투를 벌인 학도병은 전원이 전사,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재한 감독 한국전쟁 3부작 기대

'인천상륙작전' 영화를 만든 이재한 감독은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제3의 사랑'을 연출했고, 직전 연출 작품이 학도병의 장사 상륙작전을 소재로 만든 '포화 속으로'다.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 한국전쟁 3부작으로 한 편 더 만들 가능성도 예측해본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린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전쟁드라마의 전설 '밴드 오브 브라더즈'만큼의 완성도로 우리에게 절절한 감동을 안겨 주길 바란다.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손주 병법, 꽃보다 손주로 살맛 나는 사람들

PART1. 육아 일기 쓰는 할아버지 〈하씨의 육아일기〉 저자 이창식
PART2. 문화가 변해도 손주 돌봄은 역시 격려와 인정이 최고 장영희 동년기자
PART3. 대한민국 조부모의 손주 병법
PART4. '초등학생 서베이' 할아버지·할머니 우리 함께 놀아요!
PART5. 신종플루는 아니었지만 되살아난 내 보물 손녀 백외섭 동년기자
PART6. 미국 할아버지·할머니의 손주 병법 남진우 뉴욕 주재기자
PART7. 일본 할아버지·할머니의 '똑똑한' 손주 사랑법 이태문 동경 통신원

브라보가 만난 사람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산다" '풀꽃'시인 나태주
"시니어를 위한 연극은 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죽음'이 알려주는 삶의 가치와 행복 법의학자 문국진 박사

7월의 맛 닭다리 잡고, 무더위도 잡자

초복부터 말복까지를 더위가 가장 심한 때라 하여 '삼복 더위'라고 한다. 예로부터 복날이면 여름내 지친 몸과 기운을 달래기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었다. 해마다 먹던 삼계탕과 백숙이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이번 복날엔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색다른 건강식과 옛 물건들이 가득한 '솔모랭이'를 소개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페이스북아, 나 이런 생각한다

페이스북에는 재미있는 글과 사진이 많이 올라온다.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까지 다 알게 된다.

페이스북을 열면 이놈이 맨 먼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묻는다. 그러면 괜히 나쁜 짓 하다 들킨 것처럼 찔린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고 혼나는 기분도 든다. 아니, 그걸 왜 물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가 알아서 뭐 해? 남이야 전신주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뒷간에서 낙시질을 하든 말든, 멍석 말아 담배를 피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속으로 투덜거리다가도 '내가 요즘 뭘 하고 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하고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뒤져보니 요즘 나는 계속 부모-자식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런 글을 읽었다. "오늘은 아들의 첫 출근일. 애써 무심한 척 보냈지만, 긴 세월 공들여 만든 작품 하나 조심스레 세상에 선보이는 느낌. 이름 있는 기업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의 작고 탄탄한 회사를 고른 것부터 대견했다.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음으로 기원했다. 너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길…. 20여 년 전 초등학교 입학 때 귀여운 등굣길을 내려다보던 그 베란다에 서서."

또 이런 글을 읽었다. "금일봉 위에 한라봉! 한라봉 위에 천혜향! 15년 전쯤 일이다. 아이들이 기특한 일을 해서(아마 분리수거를 착하게 했던 듯), 칭찬하는 뜻으로 '아빠가 금일봉을 하사하겠다'고 하자 아들 녀석이 하는 말씀…'한라봉보다 맛있나요?' 칭찬도 칭찬이지만 아이들의 어휘 실력이 과연 그 정도인가 해서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아들은 그 정도에 그쳤지만, 딸아이는 멀뚱히 듣고만 있더니 한마디 툭 던진다. '아빠, 나 한라봉 무지 맛있어요!' 그러던 딸이었다. 이제 그 딸이 인턴인가 뭔가 정규직도 아니면서, 첫 월급을 타서 아빠에게 금일봉을 건넨다. '아빠, 드디어 생애 첫 월급을 받게 됐어요. 비록 적은 액수지만 조금이나마 감사함을 표합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용. -솔이가.' 겉봉에 쓴 글귀에서,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꺼움을 읽었다면 과한 부녀지정의 표현일런가."

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런 말도 덧붙였다. "3년 전쯤 가족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중에 효도를 어찌하려는지 물었다. 딸은 거침없이 '한 100평짜리 아파트나 빌라를 사서 잘 모실게요.' '대지 100평? 건평 100평?' '당근 건평 100평이죠!' 아들은 그래도 한 1분쯤 말이 없었다. 아비와 어미의 눈빛 야유를 견디다 못한 아들 왈 '저는 생일날 페라리를 한 대 사드릴게요.' 아들아, 80노인이 되면 페라리 몰고 못 다닌다, 창피해서. 그래서 결국 아들딸에게 주는 우리집 가훈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자!'이다."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글을 쓴 사람은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 제주 올레길을 함께 걸으며 부자가 대화를 한 적도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딸 자랑을 한 사람은 평소에도 딸 사랑이 대단한 아버지다.

나는 그런 딸도 없고, 아들과 단둘이 길을 걸어본 일도 없다. 그래서 부럽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페이스북아, 나 요새 이런 생각 자꾸 하고 있다. 어때, 됐나? 이제 그만 물어라.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usedtree@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 태 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이탈리아 은행들이 다음 진앙지?

최근 브렉시트의 여파는 많이 가라앉고 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소위 '소프트 브렉시트'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증시에서는 때이른 서머랠리 현상까지 나타나는 형국이다.

반면에 유럽계 은행들, 예컨대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와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 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 중 이탈리아 은행이 요즘 새로운 진앙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왜 그러한가?

유럽은행 감독청(EBA)에 따르면 이탈리아 은행의 대출 중 부실대출 비율은 현재 17%로, EU 은행 평균(5.6%)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5%)보다 훨씬 높다. 부실대출 액수는 3600억 유로(약 457조 원)로, 2008년 대비 4배나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한다. 심지어 이탈리아 3위 은행인 BMPS의 경우 부실채권 규모는 480억 유로로 추정되는 데 반해 시가총액은 10억 유로에 불과해 올해 들어 주가가 74%나 폭락하는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들을 위시한 유럽계 은행은 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일까? 일단 저성장에 따른 부실채권 급증,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에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유럽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탓이 가장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코코본드(Coco Bond)'라는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이 이들 은행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는 후순위채권이 바로 이 코코본드라는 제도다. 2013년 바젤III협약에 의해 코코본드가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자 경기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유럽계 은행들은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자본 확충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금리가 낮은 유럽의 개인투자자들은 고금리의 코코본드 투자에 뛰어들었고, 그중에서도 이탈리아는 그 정도가 심해 은행 채권 투자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45%에 이른다.

그런데 작년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자 유럽계 은행들의 수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급기야 코코본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올해 초부터 유럽계 은행들의 주가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유럽의 경우 올해부터 소위 'Bail In'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은행이 힘들어질 경우 은행 부채의 최소 8% 이상을 주주나 채권자가 먼저 상각한 뒤에 정부의 구제금융을 투입하도록 한 제도다.

이탈리아는 올해 들어 이미 4개 소형 은행에 대해 'Bail In'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주주 및 채권자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10월 개헌 국민투표에 정치 생명을 건 마테오 렌치 총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브렉시트까지 겹쳐 이탈리아 최대 은행까지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일단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에 의하면 상당히 비관적이다. 즉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결국은 자국 은행에 직접적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까지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와 EU가 아티클(Article) 32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부실 은행 지원을 허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탈리아 정부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또 다른 회원국들, 예컨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도 똑같은 요구를 들고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데 EU 및 독일의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인물 7월 15일 렘브란트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시대를 연 빛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1606.7.15~1669.10.4)은 사실적인 그림으로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시대'를 연 화가다. 그는 동판화도 약 300점을 남겼는데 미술평론가들은 이것만으로도 그를 최고의 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평했다. 그는 사실에 충실한 그림을 그리면서도 빛의 효과에 대해서는 색채와 명암의 대조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는 '근대적 명암의 시조'로 불린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1822년에 그의 작품 '22세의 자화상'을 보고, 청년기 꿈이 좌절돼 우울과 방황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을 되새기면서 "꿈을 포기하는 젊은 이는 생명이 없는 시신과 같으니 살아가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나중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레이던의 방앗간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가톨릭교도로서 신앙심이 깊었는데, 나중에 화가가 된 렘브란트는 어머니가 성서를 읽는 모습을 작품으로 남겨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14세에 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는 안 하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부모는 할 수 없이 그를 야코프 반 스바넨뷔르흐 밑에서 3년간 미술 공부를 하게 했다.

1625년 개인 화실을 열었으나 자신의 기량에 만족하지 못하던 그는 암스테르담의 미술가 피터르 라스트만을 찾아가 공부했다. 1632년 암스테르담으로 이사한 직후 외과의사조합의 요청으로 '튈프 박사의 해부'를 만들었는데, 그 작품으로 초상화가로서의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1642년 그린 '야경'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해에 아내까지 사망하자 실의와 궁핍에 빠지게 됐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작품에 열을 쏟았지만 화가로서의 명성을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암스테르담에서 숨졌다.

이은호 미래설계연구원 연구위원 leeeunho7@

온라인 와글와글



국민 100명 중 47명 여름휴가 계획 "반 이상은 못 가?"

올여름 국민 100명 중 47명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민 137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다녀온 응답자 비율(47.2%)은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5.5%포인트 증가했다. 여름휴가를 7월 마지막 주(7월 25~31일)와 8월 첫째 주(8월 1~7일)에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6.4%였다. 여행 평균 기간은 2.9일이었다. 2박 3일(42.5%)로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1박 2일(27.7%)과 3박 4일(16.8%)이 뒤를 이었다.

네티즌들은 "휴가 날짜를 내 마음대로 못 정하니 저때 간다", "파라솔 단속 좀 강화했으면", "휴가 몰리는 거 싫다", "국민의 반 이상은 못 간다는 거?", "이번 여름은 속초가 인기일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카드로 보는 세상



출시 열흘 만에 전 세계를 게임 광풍에 빠트린 '포켓몬 고(Pokemon Go)'.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현실 속 장소에서 잡는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다네요. 최근 속초와 양양에서 플레이된다는 소식에 국내 이용자들이 떠들썩합니다. '포켓몬 고' 열풍으로 주식 대박 난 게임업체 닌텐도가 함박웃음입니다. 구글과 애플도 한껏 들떠 있다고 합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hyNgZi



이슈&인물

中 '사드 보복' 당장은 없겠지만… 한국기업 서서히 압박할 것

제주대 한중금융연구센터장
이 규 엽 교수

남중국해 분쟁에 역량 집중
단기적으론 별 조치 없을 것
'한국채권 20%' 자체가 무기
기업에 대한 혜택 끊을 수도

中 성장 둔화에도 경제 낙관
공기업 비효율·은행부실 뇌관
한국, 지나친 수출의존도 문제
금융은 상대적으로 영향 적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중국의 사소한 동향에도 매우 민감한 체질이 됐다. 특히 지난 8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격 발표한 이후 국내 시장은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지난 2000년 6월 '마늘 파동'을 떠올리는 등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이투데이는 14일 '중국경제 전문가' 이규엽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한중금융연구센터장을 만나 사드 배치 이후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또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다. 2012년~2015년 금융감독원 북경대표처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이 센터장은 금융당국 내 '중국통'으로 손꼽히던 인물이다.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이 센터장은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적어도 몇 개월간 한국에 특별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센터장은 남중국해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 중국이 몇 가지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지혜가 한국 정부에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미·중 중립외교, 광해군의 지혜를

△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당장은 중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이다. 남중국해에는 엄청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어서 중국 정부는 외교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적어도 몇 개월 이상 끌고 가야 할 문제다. 한국의 사드 문제까지 대응하긴 어렵다."

△ 남중국해 분쟁 이슈가 끝난 뒤에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옛날의 '마늘 파동'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남중국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SDI와 LG화학이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들어가려고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인증업체 심사를 또다시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건드려 서서히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볼 것이다."

△ 중국이 다음으로 꺼낼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

"중국은 국내 채권의 20% 안팎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우리 기업에 제공하던 '당근'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압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휴대폰을 팔아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음에도 그대로 뒀다. 불공정거래가격으로 제소해 소송하는 등의 카드도 쓸 수 있다.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큰 틀에서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전략을 써왔다. 실물과 금융 모두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 일시에 갑작스럽게 매도할 가능성은 작지만 자신들의 통제력 하에 두는 것이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 쪽에 금융 챕터를 양보해 준 것도 나중에 채찍으로 쓰고자 자본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조선시대 광해군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했던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안보와 외교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먼저 장기적으로 국가적 전략을 확립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미국에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중국에는 국내에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충분히 설득하면서 가야 한다고 본다. 양쪽 강대국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

△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영국이 미국과 유럽의 비판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 위안화 시장과 직거래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민자가 많다든지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중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중 어느 쪽 시각을 갖고 있나



이규엽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한중금융연구센터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낙관론 쪽에 가깝다. 물론 비관론을 주장하는 쪽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크고 관리들의 부패가 심하다. 소수민족 분쟁도 많고 공산주의가 너무 절대적이다. 환경오염과 노령 속도도 빠르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서구 경제와 다른 부분이 많다. 고유한 나름의 룰을 가지고 움직인다. 우리의 시각만으로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브렉시트에 대해 중국은 긍정적

△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낙관하는 이유는

"지금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1차 제조업과 2차 제조업은 낮은 원가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왔지만 드론, 우주항공, 바이오 의학 등 중국의 새로운 대체산업은 빠르게 융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보면 중국경제를 낙관하게 된다. 창의 욕구를 뒷받침해주고 실패를 지탱해주는 기금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인 칭화대 졸업생 1800명 중 7%가 창업을 한다. 중국 칭화대의 벤처기금은 서울대보다 100배 이상 많다.

성장률 수치는 지나간 것들을 보는 것이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백미러'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해군을 이순신이 지휘하면 전투에서 이기고 원균이 지휘하면 진다. 국가를 끌어가는 동력에는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 가장 우려되는 중국 경제의 뇌관을 꼽는다면

"공기업의 비효율이 자칫 은행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성장률 유지를 위해 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주기에 무리가 있다고 봐서 부지가 있고 담보 여력이 풍부한 공기업에 자금이 집중됐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 공기업 중에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많다."

△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성장률 둔화가 국내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우려한다

"과거 중국의 성장률은 8%대를 유지했다. 8%대 성장률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보장선'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6%대 성장률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율이 78% 정도 된다.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실물경제보다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중국 의존도가 0.07%에 불과하다. 우리가 중국 채권을 샀다든지 중국 기업에 투자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 채권을 많이 쥔 중국이 한국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의 금융리스크에 대해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中 공공영역 사모펀드 투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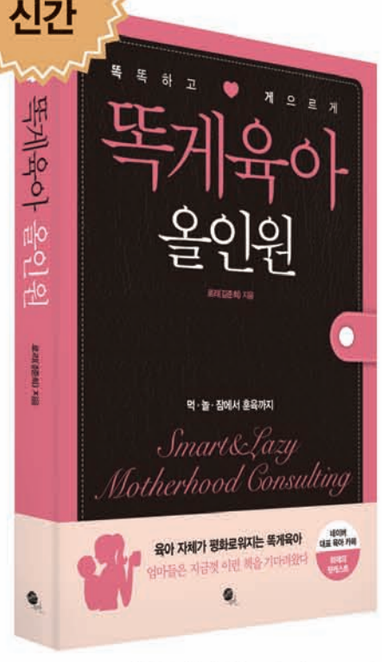
△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어떤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하나

"실물경제와 비교하면 중국 금융시장은 아직 개방이 더디다. 한국인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RQP(외국인투자적격제도)나 후강퉁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옛날만 못하다. 이런 점에서 대체투자 또는 사모펀드에 의한 전략적 지분투자 형태가 앞으로 '메가트렌드'로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정의가 알리바바에 투자한 것도 지분투자다.

여러 IB(투자은행)들이 지하철 공사 같은 것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우리나라의 서울지하철 9호선에 투자했던 것처럼 중국에 외국자본들이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한다. 중국이 신기술을 영위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공 영역 등에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한다면 리스크는 줄이고 중국의 경제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국제팀 (02)799-2643
산업1부 (02)799-2663 산업2부 (02)799-2664 사회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1부 (02)799-2641 자본시장2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48
뉴미디어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사진영상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elcome to 육아의 신세계, 육아의 럭셔리
예비맘, 초보맘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화제의 신간

로리(김준희) 지음 | 324쪽 | 15,000원
똑 똑 하 고 ♥ 게 으 르 게
똑게육아 올인원
먹·놀·잠에서 훈육까지
나도 모르게 둘째를 계획하게 만드는 똑게 효과
1. 신입이지만 베테랑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다.
2. 가정 파탄이라는 벼랑 끝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 준다.
3. 고로 첫째가 돌이 되기 전에 둘째를 계획하고 있게 된다.
4. 남편과 시댁, 친정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
5. 육아전쟁은 바이 바이! 육아 자체가 평화로워진다.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따라 하기만 하면 아이도 엄마도 행복해지는 가장 현실적인 육아서!
지랄발랄 하은맘의 불량육아
베스트셀러

책육아, 엄마표 영어 멘토 김선미 지음 | 272쪽 | 12,500원

평소 과장·숨김없는 성격 날것 담긴 '트릭'에 끌렸죠

인터뷰 영화 '트릭' 강 예 원



배우 강예원은 야무진 인상에서 오는 센 느낌이 있다. 하지만 5분만 대화하면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를 두고 많은 이들이 말하는 '강예원의 반전 매력'에 대해서 말이다.

최근 영화 '트릭'(감독 이창열)으로 관객을 찾은 강예원을 만났다. 그는 인터뷰 내내 능수능란한 대화 스킬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하지 않지만, 웬지 모르게 그녀의 말에 집중하게 된다. "무언가를 감추는 성격은 아니다. 나에 대한 것이라면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던 그녀는 과장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런 강예원이 '트릭'을 선택한 이유는 '날것의 표현'에 있었다.

"극중 다큐 주인공이니까 앵글 속의 앵글 안에서 연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날것을 표현하는 기회가 없는데,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카메라가 날 따라다니는 걸 의식하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연기가 색다르다고 여겼죠."

작품이 신선한 느낌이라서 출연을 결정했지만, 이야기 맥락은 전작 '날 보러와요'와 비슷한 구성이라 우려도 있었다. 그래도 자신 나름의 접근 방식에 대해 노력했다.

"반전을 너무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화의 주제의식을 생각하면서 '한 번의 실수, 욕심이 과하면 이런 사달이 난다'는 제 느낌으로 끌고 갔어요. 어쨌든 '트릭'은 욕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요. 가정이 파탄되는 복수 이야기니까 상황 구성보다는 캐릭터에 집중했죠."

강예원은 '트릭'에서 시한부 남편만 생각하는 순애보 아내지만, 점차 방송에 중독되어가는 아내 영애를 맡았다. 방송의 조작에 대해 다루는 만큼, 조작 의혹을 가장 크게 사는 리얼 예능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는 리얼 예능의 대표격인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도 출연한 바 있다.

"예능은 예능이에요. 조작, 리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예능적인 상황은 리얼이 맞아요. 물론 이동하는 부분, 짜인 계획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멘트, 감정은 진짜예요. 일반 다큐멘터리는 상황이 조작될 수 없으니 좋아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봐왔던 다큐멘터리가 조작이라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 **다큐에 출연한 시한부 남편 둔 부인役**
> **방송조작 다뤄…반전보다 캐릭터 집중**
> **저예산이지만 색달라… 관객반응 궁금**
> **댓글 보냐고요? 제 것은 살펴본답니다**

"다큐멘터리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하는 강예원에게 '트릭'은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랐기에 새로운 경험이 됐다. 시한부 남편을 둔 아내를 연기하며 촬영 내내 감정 소비도 많고, 추위와도 싸우면서도 연기하는 즐거움은 놓치지 않았다.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강예원이 저런 면도 있구나'란 반응만 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예산의 영화를 표현하려고 고생한 감독님과 스태프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저희는 자본주의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늘 똑같이 최선을 다하니까, 대중의 반응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끊임없이 작품으로 대중을 만나고 있는 강예원은 최근 KBS2 '백희가 돌아왔다'로 찬사를 들었다. 착한 드라마에 반응하는 시청자들의 호응이 더없이 기뻤다는 속내도 말했다.

"얼떨떨했어요. 이렇게 좋아해주실지 몰랐거든요. 자극적인 것만 계속 경쟁하듯이 나오는데 이런 착한 드라마가 통하니까 감사했어요. 댓글을 봤는데 욕이 없더라고요. '참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란 생각에 간만에 평화를 느꼈어요. 하하. 댓글 보냐고요? 제 것은 살펴봐요. 인스타그램도 하나하나 '좋아요'를 누를 정도로 적극적이에요.(웃음)"

글/서현진 기자·사진/권영탕 객원기자 sssw@



빈곤한 상상 깨뜨린 '마성의 가창력' 태연 첫 솔로 콘서트 "히트다! 히트"

태연의 첫 솔로 콘서트 현장에 가는 길. 미안한 얘기지만 그의 첫 콘서트에 대한 상상은 다소 빈곤했다. 작고, 예쁘고, 노래까지 잘하는 여가수. 태연에게 기대한 것은 그 정도뿐이었다. 그런데 웬걸. 이날 만난 태연은 상상 이상의 무대를 보여줬다.

태연은 9~1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 '태연, 버터플라이 키스(TAEYEON, Butterfly Kiss)'를 개최했다. 그는 '업앤다운(Up&Down)', '레인(Rain)', '쌍둥이자리', '와이(why)', '핸즈 온 미(Hands on me)', '스타라이트(Starlight)' 등 자신의 솔로 음반 수록곡으로 150분을 가득 채웠다.

흥미로운 것은 태연이 섹시함이나 귀여움으로 스스로를 소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그는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폴 댄스, 스트리트 댄스 등 화려한 퍼포먼스가 함께 했고 태연은 관능적이면서도 여전사다운 당찬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가 하면 '들리나요', '사랑해요' 등 발라드 넘버를 통해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기도 했다.

태연은 팬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보여줬다. VCR를 통해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Uptown Funk)'를 자신만의 느낌으로 소화해내며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동시에 남장을 하고 짐짓 코믹스러운 표정을 짓는 등 '조련 왕'다운 모습으로 환호를 얻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태연의 자작곡 '프레이(Pray)' 무대였다. "정말 힘들 때 작업한 곡이다.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었다"던 노래다.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눈시울을 붉힌 태연은, 그러나 평소와 같은 씩씩한 말투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갔다. "결국 음악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죠. 가수니까요."

'프레이' 다음 곡으로 '아이(I)'를 선곡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내 곁에 있어줘요(Stay in me)"라고 연약하게 노래하던 소녀가 어느새 "내 삶은 아름답다(My life is a beauty)"라고 외치는 광경은 가히 감격적이었다. 시원한 고음으로 공연장을 가득 메우는 태연의 모습은 더없이 자유로워보였다.

이날 태연은 기대 이상의 화려함과 기대 이상의 당돌함, 그리고 기대 이상의 진정성을 보여줬다. 확신컨대 앞으로 태연에게 무엇을 기대하든 태연은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성매매 혐의·맞고소·팬덤회복까지… '성폭행 무혐의' 박유천 캄캄한 미래

박유천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 결과의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박유천의 혐의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제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에 대한 냉담한 반응도 여전하다. 무혐의를 받은 후 넘어야 할 문제는 여럿 남았다.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박유천을 고소한 4명의 여성은 "박유천이 화장실로 불러낸 후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어 결국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이 됐다.

통상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혐의를 벗고 이미지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박유천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상황의 특수성도 있지만,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모든 수사를 마친뒤 이르면 금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됐어도 박유천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끝나진 않는다. 박유천은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과 두번째로 고소한 여성에게 공갈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대한 시시비비도 가려야 한다.

이후 마음을 돌린 팬덤을 수습하는 것도 박유천에게 남겨진 일이다.

박유천이 동방신기를 탈퇴하고 JYJ로 활동할 때에도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한 온라인 팬덤에서 "박유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힐 만큼 이번 사건은 팬들에겐 큰 상처가 됐다.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고 하지만 박유천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박유천이 제대 후 이전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



캐스팅 맹신했는데 시청률 낙방… 아쉽다 '운빨'!

'운빨로맨스'의 운빨은 영 시원치 않았다. MBC 미니시리즈의 연이은 부진을 털어줄 기대작이었지만, 창대했던 처음과 달리 끝은 미약하기만 하다. 시청률 보증수표로 불리며 흥행 저력을 과시해온 황정음과 대세 배우 류준열의 조합은 '로맨틱코미디에 최적화된 캐스팅'으로 불렸다. 하지만 어설픈 전개와 겉도는 두 사람의 케미는 초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운빨로맨스'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맹목적으로 미신을 맹신하는 여자 심보늬 역인 황정음과 tvN '응답하라 1988'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른 류준열이 IT 천재이자 게임회사 CEO 제수호 역으로 첫 지상파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 두 사람 모두 전작을 히트시킨 일등 주역으로 조명받으며 가장 주목받던 시기에 신선한 조합을 완성했지만, 어쩐지 퇴장의 순간은 그닥 영광스럽지 않다.

일단,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케미는 드라마 팬덤을 형성할 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황정음 류준열의 로맨스가 폭발되는 후반부에 시청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적당한 설렘과 웃음기만 전파하는 데 그치자, 시청자들을 쉽게 남녀 주인공 캐릭터에 이끌리지 못했다.

원작과는 또 다른 색깔을 구현하지 못한 점도 생각보다 부진한 성적을 받은 이유 중 하나다. 나름 원작에 다양한 드라마적 요소들을 추가하며 모험을 시도했지만, 차별화된 재미를 만들지는 못했다.

류준열이 연기하는 제수호의 매력도 기대만큼 표현되지 않았다. 황정음은 웹툰 속 여주인공과 흡사한 싱크로율을 보였지만, 불쑥불쑥 '그녀는 예뻤다' 김혜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연이어 보여준 비슷한 캐릭터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매력보다는 식상함을 주며 피로감을 안겼다.

미신 맹신자 심보늬와 트라우마를 가진 수학 천재 제수호의 이야기도 특별하게 풀지 못했다. 캐릭터들의 유별남 속에서 오는 에피소드도 로맨스를 위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여타 로맨틱 코미디와 경쟁할 색다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배우들의 감정도 공감과 감동을 주기엔 충만한 표현이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시청자들을 매혹시킬 포인트가 부족하다 보니 시청률도 하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 5월 25일 10.3% 시청률로 순조롭게 스타트를 끊은 '운빨로맨스'는 곧바로 수목극 정상을 차지하며 화제를 주도했다.

하지만 첫 방송 이후 줄곧 하락세를 그렸고, 2회에 8.7%, 3회에 8%까지 떨어지며 SBS 수목드라마 '딴따라'에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최근에는 KBS2 '함부로 애틋하게'와 SBS '원티드'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며 동시간대 꼴찌로 전락했다.

흥행보증 수표로 저력을 과시한 바 있는 황정음에게도, '응답하라 1988'로 '어남류'(어차피 남자주인공은 류준열)라는 열렬한 지지를 받은 류준열에게도 이번 작품에 운빨은 결과적으로 무관했다. '운빨'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의 본방사수 의욕에 불을 지필 스토리와 캐릭터의 매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서현진 기자 sssw@



“대학 특례입학 거부요? 사실은 반항심 때문이죠”

인 터 뷰 영화 ‘봉이 김선달’ **유 승 호**

대중의 시선 속에서 성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화 ‘집으로’(2002)에 몸을 싣는 순간, 유승호의 운명은 보다 시끌벅적한 곳으로 급물살을 탔다. “압도적으로 귀여워!” 외할머니 댁에 맡겨진 상우를 연기한 9살 유승호는 그렇게 전국 400만 관객의 남동생이 됐다. 만 년 남동생일 줄 알았던 유승호의 변화는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감지됐다. 타인의 기회를 뺏을 수 없다며 대학 특례입학을 거부했을 때, 또래 친구들처럼 조용히 군대에 입대했을 때, 대중은 ‘우리가 어떤 틀 안에 가둬 뒀던 유승호’를 빨리 놓아줘야 함을 짐작했을 것이다. ‘봉이 김선달’로 돌아온 유승호를 만나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엔 친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군대 다녀온 후 사람들에 먼저 다가가

처음 시작할 땐 배역공감 어려웠는데
이젠 작품 전체 보며 캐릭터 만들어가죠

△군대 다녀온 후에 뭔가 편해진 느낌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 입대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군대라는 곳은 몇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오고가는 곳이잖아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한 선임이 “너 편하자고, 사람들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야”라고 조언을 해 줬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 편하자고 침묵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후로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역 후에도 선배님들을 만나면 먼저 말을 붙이려고 노력해요. 식사는 하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사소한 것들이라도 먼저 여쭤 봐요. 제 나름 많이 변화된 거죠.”

△그런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군대 가기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네.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못했어요. 친구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요. 아무래도 공감의 정도가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웃겨요. 학창시절에 그들은 공부하면서 놀았어요. 저는 그때 수업이 끝나면 일을 해야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친구들은 꾸준히 일하고, 저는 일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백수처럼 편하게 놀기도 하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젠.”

△유승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일화 몇 가지가 있어요. ‘더 이상 유승호가 우리가 알던 아역 유승호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요. 첫 번째가 아마 특례입학 거부였을 거예요. 두 번째는 빠른 군입대였을 거고요. 당시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 정작 당사자에게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를 좋게 해야지’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멍청하다는 소릴 듣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해!”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잘하지는 않았지만 중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또래 연기자들은 연기에 집중하는데,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해? 나, 학교 안 가! 대학은 의무도 아니잖아!’ 하는 반항심이 생긴 거죠(웃음). 그리고 대학에 가도 출석을 제대로 못 할 텐데,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를 일찍 간 건, 어릴 때 꿈이 군인이어서…(웃음), 군인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리도 당시, 작품으로부터 도망 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부모님은 조금 더 늦게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겨서 서둘러 갔죠.”

△반항기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웃음)

“하하, 제가 반항심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란 깨달음을 얻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모님 말씀을 100% 따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합의를 보죠.”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어요. 초반 일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변한 게 있다면요?

“제 의지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에 초반에는 일이나 캐릭터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연기를 한 해, 두 해 하면서 점점 캐릭터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 캐릭터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 전체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돋보인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전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요. 영화가 잘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저 역시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된다고 믿고요. 그게 가장 변한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글/정시우 기자·사진/권영탕 객원기자 siwoorain@

드라마 나는데 예능은 설설~



KBS2 미니시리즈 ‘태양의 후예’ 속 한 장면. 사진제공 KBS2

KBS2 ‘태양의…’·tvN ‘또 오해영’ 등 히트작 풍년인데
육아·음악·요리 등 식상한 포맷에 가학성 논란 겹치며
JTBC ‘잘먹는…’·SBS ‘동상이몽’ 등 예능 잇단 폐지

방송가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KBS2 ‘태양의후예’가 MBC ‘해를 품은 달’ 이후 4년 만에 평일 미니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마지막회 시청률 38%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태양의 후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태양의 후예’를 잇는 드라마들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드라마 풍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tvN은 ‘또 오해영’을 통해 월화드라마가 완전히 자리매김했고, SBS 월화드라마 ‘닥터스’는 시청률 20%를 넘보고 있다. KBS2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도 첫 방송 시청률 12.5%로 대세작에 합류했다.

최근 몇 년간 평일 미니시리즈는 시청률 10%만 넘겨도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IPTV와 모바일 등의 발전으로 “시청률은 의미 없다”는 분석을 들이밀며 시청률 하락을 애써 자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재밌다고 입소문만 난다면 시청률은 자연스럽게 ‘대박’을 터트린다. 시청률 18%로 막을 내리며 케이블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쓴 tvN ‘응답하라1988’만 보더라도 “재밌으면 시청률은 따라온다”는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다.

반대로 예능에선 시청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었던 tvN ‘꽃보다 00’ 시리즈 시청률도 주춤해졌고, KBS2 ‘해피선데이’ 부활을 이끈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한 자릿수까지 시청률이 떨어지기도 했다. 유행어 제조기로 불렸던 KBS2 ‘개그콘서트’ 역시 존재감이 없긴 마찬가지다.



방송 2회 만에 종영된 JTBC ‘잘먹는 소녀들’. 사진제공 JTBC

각종 논란으로 폐지되는 프로그램들도 속출했다.

JTBC ‘잘먹는 소녀들’은 방송 2회 만에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친 뒤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종영했다. 새로운 단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제작진 외에 제목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다. 이런 결정 뒤엔 가학성 논란이 있었다. ‘주작’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내렸던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역시 1년 3개월 만에 폐지가 결정돼 오는 18일 마지막 방송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뒤를 잇는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SBS의 경우 ‘상속자’, ‘꽃놀이패’, ‘디스코 - 셀프디스코믹클럽’, ‘다시 쓰는 육아일기!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운 우리 새끼’), ‘신의 직장’ 등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전했지만, 이들 프로그램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비롯해 새 예능프로그램은 쏟아지지만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도 문제다.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할 것 없이 시청률은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말 오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만 10% 초반의 시청률로 자존심을 세우는 정도다.

한 방송 관계자는 “여행, 육아, 음악 등 한 키워드가 흥행하면 우루루 몰려 고만고만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문제”라며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시청자들의 마음을 잡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Mnet ‘쇼미더머니5’

힙합의 대중화? 아니, 미디어의 한계

비트 표절·편파심사 논란 등 곳곳 마찰음
“몸값 띄우기용” “힙합 문화 왜곡” 주장도

“한국 힙합 신(scene)의 현재를 증명하겠습니다.” MC 김진표의 멋들어진 멘트와 함께 Mnet ‘쇼미더머니5’가 시작한다. 벌써 다섯 번째 시즌을 맞는 ‘쇼미더머니’는 현재 국내 힙합 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시즌 4가 ‘쇼미더극혐(극도로 혐오스럽다)’이라는 오명을 얻고 난 뒤 Mnet은 절치부심했다. 문제가 된 선정적 혹은 폭력적인 가사나 판정 번복, ‘난장판’이 된 싸이퍼 미션 등을 대폭 개선했다. 마지막 방송 한 회만을 앞둔 15일 현재까지 꽤 순조로운 항해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회 방송을 통해 공개된 AOMG 팀의 ‘니가 알던 내가 아냐’는 에이스 후드(Ace Hood)의 ‘부가티(Bugatti)’와 비트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은 제작진과 AMOG 양측 모두 없었다.

우태운과 변도의 1대 1 대결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편파 심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준수한 수준의 랩을 선보인 우태운을 탈락시킨 반면, 변도는 한 차례 가사 실수가 있었음에도 합격 판정을 내렸다. 논란이 일자 심사위원들은 “가사 실수와 상관없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래퍼를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우태운을 향한 심사위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변도가 다 밀어버리려고 나왔다”, “우태운의 다리가 왜 이렇게 매끈하냐. 변도가 밀어버린 것 아닌가” 등 조롱 섞인 멘트가 불편함을 안겼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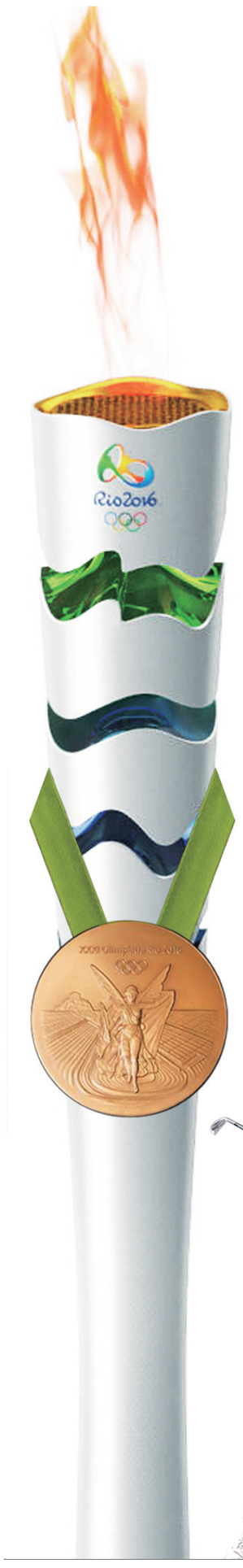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Mnet ‘쇼미더머니5’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뉴시스

그동안 ‘쇼미더머니’는 ‘힙합의 대중화’를 자부해왔다. 방송을 통해 실력 있는 래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 경연 음원이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점 등은 프로그램의 권위를 세워주는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쇼미더머니’가 가진 미디어로서의 파급력과 대중화는 구분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힙합 전문 웹진 ‘리드머’의 강일권 편집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형적인 미디어 환경과 각종 관련 시스템이 지배하는 한국대중음악계에서, 단지 음원의 성적으로 장르와 문화의 저변 확대 및 발전을 확신하고 논하는 건 매우 얄팍하고 위험한 시선이다. 얼마나 왜곡되고 구려지든 차트에서 먹히면 장땡이라는 얘기나 다름없으니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언젠가부터 ‘쇼미더머니’는 힙합 신 내에서 거대한 권력이 됐다.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미디어라는 권력. 한때 “‘쇼미더머니’에는 절대 안 나간다”고 말했던 사이먼 도미닉은 이번 시즌에서 “회사를 위해”라며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한 힙합 레이블 관계자는 “래퍼에게 ‘쇼미더머니’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몸값부터 달라진다”고 귀띔했다. ‘쇼미더머니’가 증명하겠다던 한국 힙합의 현재가 바로 이것이다. 미디어의 힘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현실 말이다.

그래서 ‘쇼미더머니’는 위험하다. 다소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쇼미더머니’가 보여주는 힙합 문화는 디스(Disrespect·무례), 스웨그(Swag·자아도취)를 벗어나지 못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비춰지는 래퍼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전형적이다. ‘쇼미더머니’가 힙합 문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 나아가 힙합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쇼미더머니’는 지금 한국 힙합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은호 기자 wild37@

리우 숲, 리디아 고 vs 태극낭자 4인



올림픽 여자골프 출전자 확정

박인비 허리 부상… 메달전선 빨간불
'역전의 명수' 김세영 승부 뒤집기 기대
'플라잉 덤보' 전인지·'연습벌레' 양희영
당일 컨디션·멘탈 대결… 승부 예측 불허
도박사들은 '세계 1위' 리디아 고 꼽아

'붉은 원숭이해(丙申)'를 맞아 골프계의 최대 화두였던 올림픽 골프 종목의 태극마크를 딸 주연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번에는 금메달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한국은 세계여자골프랭킹에 따라 박인비(28·KB금융그룹), 김세영(23·미래에셋), 양희영(27·피엔에스), 전인지(22·하이트진로) 등 4명이 나간다. 지난주까지 출전이 목표였던 이들은 각국의 대표들과 그린전쟁을 벌여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에 목표를 수정했다.

도박사들의 예상이 모두 맞지는 않겠지만 1순위로 둔 세계여자골프랭킹 1위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9·캘러웨이)가 한국선수들에게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여기에 언제든지 우승을 넘보는 베테랑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캐나다 스타 브룩 헨더슨, 태국의 강호 아리야 주타누간도 만만치가 않다.

한국낭자 중에는 연초까지만 해도 박인비가 대세였다. 박인비가 금메달을 따는 데 누구 하나 이견을 달지 않았다. 박인비는 아직 1승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간 그의 화려한 성적을 보면 여자 우승후보로 부동의 1순위였다. 그러나 허리 부상에다가 엄지손가락까지 다쳐 리디아 고의 유일한 맞수였던 박인비의 메달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박인비가 무너진 사이 결정적일 때 한방을 날리는 대항마가 있다. 바로 '역전의 명수' 김세영이다. 지난해 루키시절 연장전에서 이글 한방으로 박인비를 보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해 3승, 올시즌 2승을 올렸다. 선두에 나섰다가 그대로 우승한 적이 거의 없다. 지고 있다가 뒤집어 버리는 묘한 재주를 타고 났다. 163㎝에 태권도가 3단으로 단단한 하체와 유연성이 드라이버 거리 280야드 이상 장타를 날리는 원동력이다. 그가 최종일 역전으로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 것인가.

'플라잉 덤보' 전인지는 175cm의 '8등신 미인'으로 기량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루키로는 1위에 올라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아직 우승이 없다. 그는 2013년 내셔널 타이틀인 한국여자오픈에서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우승했다. 그리고 지난해 삼천리 투게더, 두산매치, S-OIL 챔피언스에서 3승을 거두며 '절대강자'로 부상했다. 그는 일본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처음 출전한 대회인 메이저 대회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에서 일본의 스타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그런 뒤 미국 내셔널타이틀 US여자오픈을 제패했다. 세계 여자 선수 중에서 메이저 3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쥔 것은 전인지가 처음이다.

양희영은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문제인 선수다. 연습장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다. 그리고 별로 말이 없다. 샷을 보면 늘 우승할 것 같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는지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무너진다. 2013년 10월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에서 투어 첫 승을 거둔 양희영은 지난 3월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정상에 올랐다. 그는 올 시즌 13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과 준우승 한 차례씩을 포함해 5번이나 '톱10'에 들었다. US여자오픈에서도 우승 다툼을 하다가 공동 3위에 올라 우승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메달은 사실 뚜껑을 열어 봐야 안다. US여자오픈에서 리디아 고가 다 잡았던 고기를 놓친 것처럼 골프특성상 경기 당일에 컨디션과 멘탈의 차이로 인해 성적을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다. 특히 코스 상태나 날씨 등 골프장의 환경도 성적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완공된 올림픽 코스는 바다를 끼고 있는 링크스 코스여서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강한 바닷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대형 워터 해저드와 페어웨이와 그린 주변에 복병처럼 숨어 있는 벙커들로 인해 선수들이 얼마나 제 기량을 잘 발휘할지도 알 수가 없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58@



리디아고 박인비 김세영 양희영 전인지

스와로브스키 만난 히메클럽, 반짝반짝

UOM, 초경량 티타늄 소재 440cc 헤드 장착

'예스퍼터'로 잘 알려진 골프클럽전문기업 UOM(대표이사 이성훈)이 2016년 신제품 '히메(Hime)'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히메 줄리에 오렌지와 블루 풀세트로 구성됐다.

히메는 '공주'라는 뜻의 여성전용 골프클럽이다. 2014년부터 스테디셀러인 히메클럽은 일본에서 제작된 프리미엄 클럽으로 기능이 뛰어나면서도 디자인이 미려하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로 내놓은 신제품은 클럽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클럽헤드에 삽입된 주얼리는 스와로브스키 정품 원석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높였다.

근력이나 파워가 조금 부족한 여성 골퍼들도 거리를 더 낼 수 있도록 헤드디자인에 신경을 기울였고, 보다 즐거운 플레이가 골프 퍼포먼스를 실현했다.

드라이버는 티타늄 소재로 사용한 440cc 대용량 헤드를 장착했지만 초경량이어서 스윙하기가 편하다. 스위트 스폿이 넓어 빗맞을 확률을 낮췄고 관용성을 높여 기존 클럽보다 비거리를 늘렸다.

페어웨이 우드는 고강도 메탈 소재로 페이스면을 얇게 설계해 반발력을 높여주고 비거리도 보장해 준다. 유틸리티우드는 초반박 페이스 설계로 우드의 비거리와 아이언의 정확성을 모두 만족해 주도록 제작됐다. 페어웨이 우드는 4번과 7번, 유틸리티 5번으로 구성됐다.



히메 줄리에 오렌지 히메 줄리에 블루

아이언은 헤드 상단부에 주얼리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의 원석을 장착해 돋보이는 미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오버 사이즈 페이스와 언더컷 형태의 백페이스로 디자인돼 치기가 편하다.

퍼터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말렛형으로 페이스면의 C-그루브 형태의 홈이 그린에서도 정확한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스핀을 만들어준다.

히메클럽은 골프용품유통전문점 골프존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 중인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갤러리 경품이 'BMW'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17일까지

이번 주에는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로 나들이를 가자. 만일 용꿈이나 돼지꿈을 꿨다면 대박이 터질지 모른다. 특히 추첨만 했다 하면 당첨이 되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은 무조건 가보자. 갤러리 경품으로 BMW 자동차가 걸려 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 두 곳에서 '홀인원' 자동차를 걸었다. 파3홀인 12번(162m, BMW i8)과 16번(151m, BMW 750Li)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 BMW를 준다. 지난해 서하경이 대회 최종일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BMW i8을 부상으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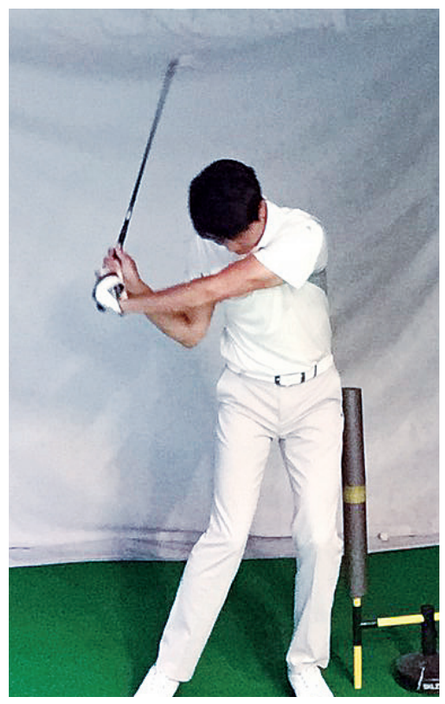
BMW 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가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6(총상금 12억 원, 우승상금 3억 원)은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리조트 하늘코스(파72·6073m)에서 열린다. 갤러리는 1, 2라운드에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김동하의 사이언스골프레슨 스윙리듬 ①

체중이동만 잘해도 '비거리 업'



스윙을 할 때는 자신만의 리듬을 잘 타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골프레슨을 해보면 초보이거나 중상급자이거나 모두 자기만의 스윙리듬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 그게 뭐냐고 되묻기까지 한다.

때문인지 이들의 스윙에는 주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보통 일명 똑딱이라는 코스를 배우는 초급과정,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하나~둘" 하면서 타이밍을 찾기 위한 리듬을 익히게 한다.

그러나 똑딱이를 넘어 풀스윙에 이르게 되면 한결같이 처음에 익혔던 이런 리듬 따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다. 아니 안 한다. 이제 자기 자신은 초급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리듬은 초급과정에서만 필요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스윙을 망치고 있다.

최적의 타이밍을 위한 리듬은 초급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프로선수들은 자기만의 스윙리듬을 타며 타이밍을 맞춘다. 프로인데도 말이다. 그만큼 리듬은 스윙 전반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듬을 찾지 못하면 체중이동이 적절한 타이밍에 못 이뤄져 미스샷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환동작에서의 체중이동은 리듬만 잘 타면 아주 쉽게 타이밍을 익힐 수 있다.

체중 이동이 제대로 이뤄지면 왼쪽 스윙 축을 중심으로 강력한 '힙턴(hip turn)' 동작이 만들어져 파워풀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체중이동을 언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아마추어 골퍼들이 주로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스윙에 일관성이 없어 비거리는 물론,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리듬을 만들어보자.

권장하는 리듬은 바로~ "하나~ , 두~ 울~, 셋"이다. 이 리듬 속에서 체중이동과 힙턴의 타이밍을 찾아야 한다.

우선 처음과 끝을 먼저 설명하겠다. 어드레스에서 "하나"로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고, "셋"은 임팩트일 것이다.

문제는 중간 단계다. 왜 "둘"이 아니고 "두~울"이냐 하면, "두"에서 톱 포지션으로 백스윙을 진행하는 과정의 단계라면 "울"에서 체중이동과 함께 강력한 힙턴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한국사이언스골프아카데미 원장



이재철의 골퍼와 면역건강

장타 안나온다면… 혈액건강 문제 체크



주말마다 꾸준히 공을 쳐도 비거리가 늘지 않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울상인 사람들이 있다. 좋은 성적을 위해 자세를 바꾸고 프로골퍼들의 기술과 그들이 사용하는 골프채를 눈여겨보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지인에게 혹시 혈액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곤 한다. 근본적으로 비거리를 늘리는 데 중요한 것은 집중력과 타력인데, 체중의 7~8%에 달하는 혈액이 탁하면 컨디션이 저하되고 체력이 좋지 않아 주의가 분산되기 쉽기 때문이다.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우리 몸의 중앙부터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뻗어나간다. 온몸을 돌아다니며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수분과 산, 염기, 전해질의 균형을 맞춘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혈액이 탁하거나 잘 순환하지 않으면 쉽게 피로하고 손발 저림,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 질환에 취약하다.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의 화두는 어떻게 혈액을 맑게 하느냐에 있다.

혈액을 정화하려면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주 3회 이상, 최소 30분가량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으로 체온을 올리면 체내 대사를 촉진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다. 특히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한다.

운동할 때 흐르는 땀을 귀찮아하면 안 된다.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노폐물, 몸에 축적돼 있던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땀과 함께 흘러나가기 때문이다. 단순히 더워서 흘리는 땀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을 배출하지만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오히려 칼슘, 인과 같은 무기질을 흡수한다. 운동 장소가 산이면 더욱 좋다. 숲에서 뿜어내는 맑은 산소와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고 노폐물을 배출해도 다시 음식으로 섭취해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누구나 알듯 기름진 음식과 정크푸드는 피하는 것이 상책. 특히 당과 단백질이 결합한 최종 당화 산물이 든 음식을 멀리 해야 한다. 탄고기와 간장 조림에 많은 최종 당화산물은 혈액을 응고시켜 혈액순환을 저해한다.

대신 미역, 김 등의 해조류와 다양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자. 해조류에는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철과 구리가 풍부하다. 특히 미역에는 엉긴 피를 풀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알긴산이 많다. 요즘 제철인 토마토, 참외, 복숭아, 옥수수 등과 같은 과일과 야채로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맑은 혈액과 튼튼한 체력을 만들 수 있다. 생활관리에 더불어 자신의 혈액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혈액정화요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혈액만 맑게 한다고 비거리가 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컨디션과 체력으로 골프를 즐기다 보면 건강은 물론, 성적도 덤으로 따라올 것이다.

반에이치클리닉 원장·통증의학 전문의

한국 고대사, 끝나지 않은 전쟁

④ 고조선 국경선, 패수의 위치는 어디인가

압록강·청천강·대동강?…한반도說은 어불성설

고조선은 서기전 24세기에 건국되어 동아시아의 선진대국으로 2000년을 존속해 왔으며 중국의 성장·발전에 따라 서기전 2세기에는 패수라는 강을 경계로 하여 중국의 한(漢)나라 초기 제후국인 연(燕)나라와 이웃하게 되었다. 당시 연나라의 위만이 경계인 패수를 건너 고조선의 서쪽 변경에 망명해 왔다가 반란을 일으켜 위만조선을 세웠는데, 이 위만의 조선에 대해 기록한 역사서가 사마천의 '사기' 중 '조선열전'이다. 이 '조선열전'을 통해 패수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학계에서 패수를 압록강이나 청천강 등 한반도의 강이라는 주장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조선열전'에는 중국 연나라의 위만이 '동쪽'으로 경계인 패수를 건너 고조선에 망명했다고 기록했다. 만약 패수가 일



'사기-조선열전'엔 연나라 동쪽 조선과 경계 기록
'수경'엔 낙랑군 흐른 '패수'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한반도 강이라면 위만은 남쪽으로 건넜다고 해야
위만조선 도읍지 '왕험성' 패수 동쪽 위치했다는데
식민사관 추종한 사학계 '지금의 평양'으로 주장
이병도는 대동강을 '열수'·하구를 '열구'로 둔갑시켜

제 식민사학자나 지금 학계의 주장처럼 압록강이나 청천강·대동강 등 한반도의 강이었다면 그 강들이 동에서 서로 흐르므로, 위만이 '남쪽'으로 건넜다고 해야 평양에 이를 수 있다. 또 위만이 조선에 와서 도읍했다는 왕험성(평양)의 위치에 대해 '사기'의 주석서를 보면 신찬이라는 학자가 패수의 '동쪽'이라 했으므로 역시 위만이 동쪽의 조선으로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왕험성이 요동군이나 창려군의 험독현이라고 주석했으므로 그곳이 만주였음을 알 수 있으며, 왕험성이 지금의 평양이었다는 학계의 주장이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을 추종한 잘못임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한(漢) 무제가 서기전 109년 위만조선의 우거왕을 칠 때 수군대장 양복이 '제(齊)나라를 따라 발해에 떠서(從齊浮渤海)' 열구라는 곳에 상륙작전을 폈다. 이에 따르면 지금 중국 산동성 해안을 따라 안 쪽의 발해만으로 들어가 톈진 부근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병도는 일제 강점기에 쓴 '패수고'에서 이 구절의 '발해' 다음에 괄호 속에 '황해'라고 써넣어 사료를 조작했다. 발해와 황해는 누구나 아는 대로 별개의 바다인데 같은 바다로 만들어, 양복이 황해를 건너 대동강 입구의 열구(列口)로 왔다는 것이다. 대동강이 열수(列水)라는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설을 추종하여 그 입구인 대동강 하구가 열구라는 허위 주장을 한 것이다.

이 열수의 북쪽에는 또 열양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산해경'을 보면 이 열양이 중국 연나라의 땅이라 했으며 그 동쪽에 조선이 있다고 했다. 즉 연나라의 위만이 '동쪽'으로 조선에 왔다는 '사기'의 '조선열전' 기록처럼, 이 기록도 역시 연의 '동쪽'이 조선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병도의 주장처럼 열수가 지금의 대동강이라면 그 북쪽의 열양은 연나라가 되는데, 그곳은 평양과 거의 같은 곳으로 또 조선이 되어야 하므로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연나라의 열양은 한반도에 있지 않았으며, 그 동쪽의 조선 또한 한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패수나 열수가 한반도의 강이라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로 성립할 수 없음을 논했다. 패수에 대한 기본 사료인 '사기'의 '조선열전'에는 앞에서 보듯 그 위치를 보하이(발해·渤海) 연안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한서'의 '지리지' 중 ' 낙랑군' 조를 보면 25개 속현의 이름과 각 현에 대한 간략한 기술이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낙랑군을 흐르는 패수·대수·열수가 서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어 이 강들이 한반도의 강인 것처럼 조작했다. 이 강들이 한반도에 있을 수 없음은 이미 밝혔다.

그런데 '한서'의 '지리지'에 동북쪽의 유주(幽州)와 북쪽의 병주(幷州)에 속한 15개 군들을 보면 군 안에 도위를 따로 두어 군의 일부를 다스리게 했다. 그중 낙랑군을 제외한 8군은 모두 동부·서부의 두 도위를 두었으나 유독 낙랑군에는 동부와 남부도위의 둘을 두었다. 15개 군 중 낙랑에만 남부도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군의 관할 지역이 특수하게 'ㄱ' 형태여서 동부와 남부에 보조할 도위를 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낙랑군은 바닷가에 있었으므로 이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자면 톈진을 둘러싼 보하이의 서(북)안 지역 외에는 없다. 한반도에서라면 함경남도 해안에 있을 수 있으나 서해안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없으니, 낙랑이 평안도라는 설은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는 '수경' 권13의 누수인데, 습수라고도 하는 이 강은 지금의 융딩허(영정하·永定河)로서 베이징을 지나 톈진으로 흘러 바다(보하이)로 들어간다. 장안(張晏)은 이 습수와 그 지류인 습여수(선수) 그리고 열수(고하)의 세 강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낙랑군 조선현이라고 했다. 패수 역시 낙랑군을 흐르는데 '수경'에는 "패수가 낙랑 누방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임패현을 지나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 기록에 맞는 강을 찾자면 차오바이신허(조백신하·潮白新河)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강은 낙랑 누방현에서 발원하는 것은 아니고 차오바이허(조백하·潮白河)의 하류의 흐름에 새로운 다른 강줄기를 만들어 붙인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강은 거슬러 올라가면 차오바이허이며 또 거슬러 올라가면 상류는 바이허가 된다. 그리고 바이허 상류로부터 차오바이허를 거쳐 옛 물길로 흐르는 전체의 강은 하이허(해하·海河) 또는 구허(고하·沽河)로, 결국 패수는 위의 열수와 같은 강이다. 이와 같이 낙랑은 톈진 해안이고 요동은 그 서북 쪽의 베이징 부근이었다. 한나라의 요동·현도가 베이징 부근임을 '수경'이 위와 같이 충분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학계에서는 계속 외면한다. 국민 모두가 이런 매국적 사학계의 속임수를 알아야 한다.



황 순 종
고대사 연구가

필자는 서울대학교 및 미국 디트로이트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대 문헌과 사류를 중심으로 철저한 고증을 추구하며 저술한 '동북아 대륙에서 펼쳐진 우리 고대사'(2012)와 '식민사관의 감춰진 맨얼굴'(2014) 등을 쓴 역사 저술가이다.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을 영구 지배하기 위해 만든 식민사관을 바로잡는 일에 남은 인생을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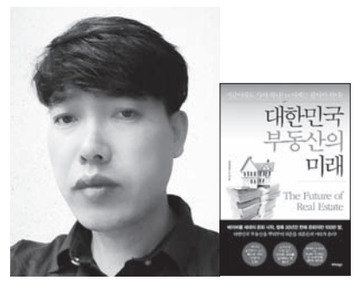
저자가 쓰는 서평

김장섭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최상·최악 시나리오 부동산 투자 교집합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입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균수명은 78.5세입니다. 60세에 은퇴해서 20년 가까이 더 산다는 뜻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축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20분의 1 가격으로 처참하게 떨어지고 20년간의 장기불황이 몰려올 것입니다. 청년실업은 제조업의 세계 경쟁력 악화와 몰락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장기 호황이 지속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셰어하우스·주택연금 노후준비
토지·자본 이용하는 법 준비해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오른 부동산과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더 오른 부동산을 구별하고 교집합을 구해 투자하는 것이 곧 최상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는 공유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들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바로 셰어하우스가 이러한 상황에 최적화된 공유경제 시스템입니다. 또 지금은 주택이 한 채만 있어도 연금이 나오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 한 채만 잘 구입해도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셰어하우스를 통해 노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토지와 부동산, 자본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많이 버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라는 다짐과 물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 나온 책



난정연회
하태형/한길사/3만 원

하태형 교수가 '난정연회'를 출간했다. 저자 하태형 교수는 한문 전공이 아닌 경제학자지만, 한국 서예의 대가인 하석 박원규 선생과 만난 뒤 한문에 마음을 빼앗겼다. 서예사 최고의 작품인 '난정서'에 천착해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난정서'를 다각적으로 고찰한다. 하연지의 '난정시말기', '세설신어', '진서', '왕희지전', '장자' 등 여러 문헌을 두루 살피며 왕희지와 사안, 손작, 환온 등 주변 인물들의 생애와 인간상을 그려냈다. 아울러 '난정서'의 여러 판본을 두루 비교했다.



헬스의 정석: 근력운동 편
수피/한문화/2만5000원

합리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블로그를 10년째 운영해 온 저자 수피가 '헬스의 정석: 근력운동 편'을 펴냈다. 전작 '헬스의 정석'에서 몸, 운동, 영양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실전 팁을 전수했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구체적인 운동법과 효율적인 운동법을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하면 되는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근육, 골격, 체형의 이해에서부터 부위별 트레이닝과 내 몸에 꼭 맞는 운동 프로그램 설계까지 책에 담았다.

도서공급률 갈등에…'문학동네' 책이 사라졌다



소설가 최은영의 신간 '쇼코의 미소'(왼쪽)와 남궁인의 에세이집 '만약은 없다'.

3~5%P 인상 통보…입장 대립
일부 중소형 서점 매대서 치워

도서 공급률 인상에 대한 출판사 문학동네와 서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거래가 끊겨 일부 서점에서는 문학동네 책이 사라졌다.

15일 출판계에 따르면 최근 출간된 도서 공급률 인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학동네 책들이 온라인·대형 서점에 입고되지 않고 있다. 소설가 최은영의 신간 '쇼코의 미소', 남궁인의 에세이집 '만약은 없다' 등은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일시 품절된 상태다.

앞서 문학동네는 6월 말 온라인·대형 서점 공급률을 기존 65%에서 70%로 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문학동네는 도매서점 공급률을 기존 60%에서 63%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문학동네는 "도매서점 공급률을 올리지 않으면 온라인·대형 서점 공급률 인상안과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 그러면 온라인·대형 서점은 출판사 대신 도매서점과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서 공급률은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하는 책값의 정가 대비 비율이다.

도매서점 공급률을 높이자 이번에는 중소형 서점의 반발이 거세졌다. 일부 중소형 서점은 매대에서 문학동네 책들을 치워 버렸다. 이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유통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상 중소형 서점은 도매서점으로부터 공급률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금액으로 책을 구매한다.

문학동네는 중소형 서점에 "사정이 어렵다면 출판사와 직접 거래하는 방안도 있다. 선입금, 10권 이상 주문 조건으로 68%에 공급하겠다. 주문량의 8% 이내라면 반품도 받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복 유통대책 위원장은 "문학동네 책을 10권 이상 주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반품 조건도 현실적이지 않다. 자기가 만든 책 재고가 8%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거래 중단 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대형 서점과 중소형 서점, 문학동네가 각자 자신이 '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형 서점 관계자는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 거래 중단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협의는 하고 있다. 일단 다른 경로로 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형 서점 측은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지,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서점이 도매서점으로부터 책을 구매하는 것을 제재할 방안을 찾아야지, 중소형 서점을 압박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학동네는 "온라인 서점과 3.5%포인트 정도의 인상안을 두고 협상 중이다. 최소한 도매서점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타결되지 않으면 책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 정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휴가철 많이 읽는 책은?

작년 7~8월 건강·취미분야 도서 판매량 '쑥'
여름방학 겹쳐 학습서·외국어서적도 늘어

휴가철인 7~8월에는 5~6월보다 건강·취미 분야의 도서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스24는 "2015년 휴가철 도서 판매 흐름을 살펴본 결과 휴가 기간이 몰리는 7~8월에는 건강·취미 분야 도서 판매량이 전월 대비 81.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관련 도서를 제외하면 건강·취미 분야 도서 판매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휴가를 앞두고 몸매 가꾸기에 관심을 보이는 독자가 늘어나면서 '한혜진 바디북', '아름다운 몸 만들기' 등이 인기를 끌었다. 또 '비밀의 정원', '신비의 숲' 등 컬리링북 열풍과 자수, 매듭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점도 이 같은 결과에 한몫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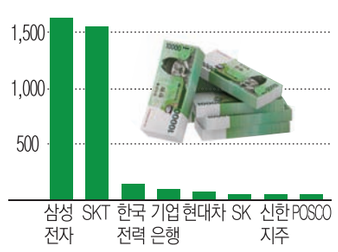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도서 판매량이 총 29.3% 늘어났으며, 해외문학은 29.1%, 역사는 19.8%, 여행은 12.7% 성장했다. 다만 방학기간이 겹치면서 초등학습서(113.3%), 중·고등학습서(92.5%)의 판매량이 가장 크게 늘었다. 또 방학 동안 외국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관련 도서의 판매량 역시 증가했다. 성·연령별로는 30, 40대 여성이 각각 21.2%, 29.6%로 과반수가 넘는 50.8%를 기록했다. 연령대로만 살펴보면 40대의 도서 구매율이 43.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9.6%로 뒤를 이었다.

올해에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윤정 예스24 뉴미디어팀 팀장은 "몸매를 가꾸기 위한 운동 관련 도서들이 꾸준히 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운동 초보를 위한 틈새 운동을 다룬 '주원홈트', 3주 단기간 다이어트 프로젝트 '김사과 꿀복근 다이어트', '김사과 애플힙 다이어트' 등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거나 다이어트를 돕는 책들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캘리그라피 열풍을 이어나갈 '바르다 손글씨 교정 노트', '30일간 글씨 연습' 등 악필을 교정해 나만의 글씨체를 만드는 손글씨 교정 도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올 초부터 시작된 국내 작가들의 소설에 대한 인기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현대차發 '녹인쇼크' 떨쳐냈나 국내 종목형 ELS, 3년새 최대

지난달 발행규모 5000억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아직 지수형의 10% 못미쳐 삼성·SKT 등 대형주 중심 본격 회복까진 아직 멀어



지난 2014년 '현대차발' ELS 쇼크로 위축됐던 국내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최근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ELS 발행시장에서 국내 종목형 발행 규모가 3년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조2441억 원, 1287건의 ELS가 발행됐다. 이 중 국내 종목형 발행 규모는 약 5000억 원으로 사실상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파생상품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 이후 주요 기초자산에서의 녹인(knock in) 이벤트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급격 국내 종목형 ELS 발행이 급격히 위축됐으나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전체 ELS 발행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최근 국내 종목형 ELS의 누적 발행이 월별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종목형 ELS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교보증권 연구도 "해외 종목형의 발행 시도에 이어 올해 상반기 국내 종목형 발행이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이 같은 추세는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종목형 ELS 발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국내 종목형 ELS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간 지수형 ELS 발행 비중에는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행 종목이 대형주 위주인 것도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에스에프에이, 에스엘, 카카오, 평화정공 등 4개사가 지난달 신규 발행되기도 했지만 6개월 연속 ELS로 발행된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텔레콤, 기업은행, 신한지주, 한국전력 등 대형주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도 "사실 6월 국내형 ELS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을 정도 삼성전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 ELS시장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종목형 ELS와 같이 과거 익숙했던 것에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어서 오히려 종목형 ELS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스마트베타지수

구분	개발지수	기본콘셉트
Single Factor	①KRX 스마트 밸류	주가저평가 종목으로 지수 구성하여 초과수익 달성
	②KRX 스마트 퀄리티	우량종목 중심으로 지수 구성하여 초과수익 달성
	③KRX 스마트 모멘텀	주가 상승률이 좋은 종목으로 초과수익 달성
Multi Factor	④KRX 스마트 밸류모멘텀	밸류 및 모멘텀이 우수한 종목으로 초과수익 달성

거래소 '스마트베타 지수' 공동개발 "저평가종목 발굴…균형가격 발견"

밸류·퀄리티·모멘텀·밸류모멘텀 4종

다양한 팩터 활용 '초과수익' 추구

'코스닥 150 섹터·저변동성'도 선봬

한국거래소가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베타 지수 4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스마트베타지수는 다양한 팩터(Factor)를 활용해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지수이다. 코스피 200 대비 지수성과가 우수하고 개인은 물론 기관 등의 대규모 자금운용에도 적합해 저금리시대 투자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지수는 스마트 밸류, 스마트 퀄리티, 스마트 모멘텀, 스마트 밸류모멘텀 등 4종이다.

거래소 측은 "박스권 장세의 지속으로 투자자의 시장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저평가 종목을 적극 발굴해 투자함으로써 해당 종목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균형가격 발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을 활용한 '코스닥 150 섹터지수' 8종과 '코스닥 150 저변동성지수'도 함께 선보였다. 코스닥 150 섹터지수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콘텐츠기술(CT) 등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재편되는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8개 섹터지수다. 지난해 선보인 코스닥 150 지수를 활용한 연계지수 라인업 구축으로 코스닥시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섹터투자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 150 저변동성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볼(Low-Volatility·저변동성) 투자전략을 코스닥 시장에 처음 접목한 지수다.

정상호 인덱스마케팅팀 팀장은 "코스닥 150 섹터지수와 저변동성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며 "(연계지수) 시장 수요를 반영해 코스닥 150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지수, 스마트베타지수 등 다양한 연계지수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윤영각의 파빌리온 국민연금 감사 출신 강연재 부회장 영입



윤영각 전 삼정KPMG 회장이 이끄는 사모펀드(PEF) 파빌리온인베스트먼트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파빌리온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국민연금 감사를 지낸 강연재 부회장〈사진〉을 영입했다.

강 부회장은 이달부터 정식 출근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증권, 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국민연금 감사 등을 역임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 부회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산업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이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상무, 현대증권 부사장, 현대자산운용 대표, 국민연금공단 상임 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바른에서 기업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F), 자산유동화증권(ABS),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분야 고문을 지냈다.

강 부회장은 "파빌리온인베스트먼트가 PE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

IPO 車내장재 제조기업 두올

"시트커버·에어백 등 친환경·경량화 섬유소재 연구"

中법인 거점…유럽·남미 등 공급

2020년 글로벌실적 5000억 목표



"2020년 글로벌 실적 5000억 원 기반 소재 전문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겠습니다."

조인회 두올 대표〈사진〉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입성을 앞둔 포부를 밝혔다.

1971년 인테리어용 소재 사업으로 시작한 두올은 이후 자동차용 시트 사업에 진출, 자동차 내장재 제조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이며 제네럴모터스(GM), 르노삼성, 중국 지리자동차 등과 거래하고 있다.

두올은 소재에서 시트커버, 에어백 내장재까지 자동차 섬유화학 부문 광범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다수의 중국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유럽 및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에 대한 자체 영향력을 확장해 체코, 브라질, 터키 등에서 독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두올은 시트내장재를 처음으로 국산화해 현대차가 '포니'를 출시할 때부터 시트내장재를 납품했다"면서 "원재료 소싱에서 생산까지 자체 진행하는 국내 최대 자동차 섬유내장재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두올은 자체 보유한 중앙연구소를 통해 소재 및 양산 가공에 대한 기술연구와 개발 차종, 품질설비 관리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스웨덴 디자인 기업 보그스티나, 인도 로컬 브랜드 BMD 등 글로벌 기업과 R&D(연구개발)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향후 두올은 친환경, 경량화 추세에 맞춰 섬유소재 적용 영역을 확장하고, 스마트 내장재 등 첨단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대표는 "국내외 강력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력을 갖췄으며, 제조 인프라별 커스터마이징 생산 시스템으로 국내외 독과점 공급자의 위상을 확보했다"면서 "상장을 발판으로 세계 자동차 내장재 시장의 명가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두올의 총 공모주식 수는 730만 주, 공모예정가는 7500~9000원으로 547억~657억 원을 공모한다. 오는 19~20일 공모청약을 거쳐 2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 3662억 원, 영업이익 26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7.1%이다. 공모자금은 일부 부채상환과 R&D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반대매매 몰려 블록딜 당한 김준일 락앤락 회장

어제 장 종료직후 지분 500만주 수요예측 실시했지만 무산
이달들어 1만3000원대로 뚝… 은행서 추가담보 요구 받아



김준일 락앤락 회장 보유주식 계약 현황 (단위 : 만 주)

주식수	계약상대방	계약 종류	계약체결(변경)일	비고
190	기업은행	담보계약	2015년 09월 17일	주식담보대출
244	한국증권금융	담보계약	2015년 09월 26일	주식담보대출
100	한국증권금융	담보계약	2014년 02월 07일	주식담보대출
30	기업은행	담보계약	2014년 02월 10일	주식담보대출

김준일 락앤락 회장이 보유 지분 매각에 나섰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여파가 아니냐는 추측인 나온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김준일 락앤락 회장이 전날 장 종료 직후 보유 중인 락앤락 지분 300만주(5.45%)에서 500만주(9.09%)에 대한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 돌입했다. 한 주당 할인율은 이날 종가 대비 7%가 적용된 1만2600원에 적용됐으며, 매각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그러나 15일 수요예측 결과 블록딜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300만 주 수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딜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김 회장의 지분 매각에 대해 김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최근 주가가 하락하며 그에 따른 반대매매로 블록딜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개인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최대 9% 이상 나온 적이 없어서 반대매매 여파로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주식 564만 주에 대해 한국증권금융 및 기업은행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계약 중 한국증권금융과의 100만 주 계약과 기업은행과의 30만 주 계약은 각각 한국증권금융과의 244만 주 계약과 기업은행과의 190만 주 계약에 대한 추가 담보계약으로, 2014년 2월 체결된 사항이다.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은행 측이 담보 가치 하락을 이유로 추가 담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증권금융과의 244만 주 계약과 기업은행과의 190만 주 계약은 각각 지난해 9월 연장됐다.

락앤락은 김 회장이 한국증권금융, 기업은행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은 2014년 2월 당시 주가 1만7000원대였다.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한 지난해 9월 주가는 1만4000원대였다. 다소 상승하며 올해 5월 1만50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7월 들어 1만3000원대로 떨어졌다. 락앤락은 14일 종가 1만3550원에 마감했다.

4월 말 기준 김 회장은 락앤락 주식 2903만5919주(52.7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63.7%에 달한다. 락앤락은 지난해 매출 4071억 원, 영업이익 353억 원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040억 800만 원, 영업이익 138억9300만 원을 기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크루셜텍, 中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모듈'

5월 출시한 '아너V8' 이어 '아너 8' 등 주요 제품군 탑재

크루셜텍 주가
단위: 원



크루셜텍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지난 12일 공개한 스마트폰 신제품 '아너 8(Honor 8)'에 BTP(모바일 지문인식 모듈)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웨이의 대표 라인업인 '아너(Honor)'시리즈의 최신 모델로 공개된 아너 8은 5.2인치 커브드 글래스 디스플레이에 자체 개발 기린 950 칩셋,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지문인식모듈은 원형 디자인으로 후면에 자리잡고 있다.

크루셜텍은 '메이트 8', 'P9' 등 프리미엄 라인업부터 지난 5월 출시된 듀얼 카메라폰 '아너V8', 그리고 이번 '아너 8'까지 화웨이의 주요 제품군 전체에 계속해서 BTP를 공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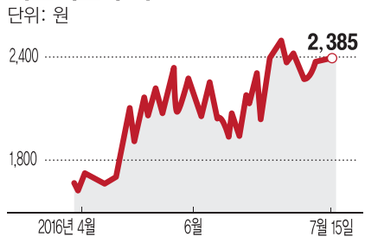
아너 시리즈는 P시리즈, 메이트 시리즈 등 화웨이의 프리미엄 라인업과 유사한 사양을 갖췄으나 샤오미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판매에 집중, 프리미엄 라인업 대비 한 단계 낮게 가격 포지셔닝을 한다. 가격 대비 사양이 매우 뛰어나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해 1억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팔아 글로벌 3위, 중국 1위에 올랐다. 올해는 아너 시리즈의 고정적인 인기에 출시 두 달 만에 전작의 130%에 해당하는 260만대의 판매고를 기록한 P9까지 가세해 1억4000만대 출하 계획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시노펙스, 2년간 스리랑카 정수기에 '쌀겨 필터' 공급

디오랑카에 한달 최대 2만5000대…탈색·탈취 성능 30% 이상 우수

시노펙스 주가
단위: 원



시노펙스가 스리랑카 국민 정수기 사업의 필터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시노펙스는 스리랑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 정수기 사업의 직수형 정수기 필터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스리랑카 국민정수기 사업은 스리랑카 정부가 국민에게 저비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사업으로 시노펙스의 필터를 탑재한 직수형 정수기 모델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시노펙스는 이번 달 말부터 스리랑카의 국민정수기 공급기업인 디오랑카(DIO LANKA.Ltd)를 통해 월 5000대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월 2만 대, 2017년에는 월 2만5000대의 정수기용 필터를 공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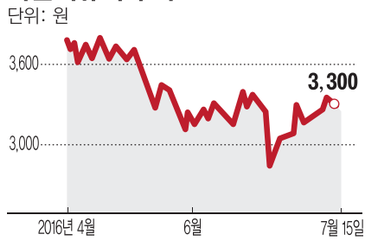
시노펙스의 필터를 탑재한 직수형 정수기는 시노펙스의 UF급 멤브레인 필터와 시노펙스가 독점적으로 개발한 쌀겨 활성탄 필터를 사용해 저비용 고품질의 정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쌀겨 활성탄 필터는 일본 소니(sony)사의 쌀겨 소재를 적용해 시노펙스가 2년간의 개발 기간을 걸쳐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시노펙스는 일본 소니사로부터 필터 제조 분야에 적용되는 쌀겨 소재의 독점적 공급과 글로벌 필터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 필터는 기존 코코넛 소재를 적용한 필터보다 탈색과 탈취 등 흡착 성능이 30% 이상 우수하고 부드러운 물의 맛 또한 좋은 것이 특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라온시큐어 '생체인증 솔루션' 국내 첫 카드사 앱 탑재

'터치엔 원패스' 현대카드에…지문·홍채정보 서버저장 안돼 유출 뚝

라온시큐어 주가
단위: 원



라온시큐어는 공인인증서나 패스워드 없이 지문, 홍채인식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하는 국제 생체인증 표준 FIDO 기반 생체인증 솔루션 '터치엔 원패스'를 국내 카드사 최초로 '현대카드(+앱카드)' 앱에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서비스 가능하다.

라온시큐어의 이번 '현대카드(+앱카드)' FIDO 생체인증 서비스 오픈은 올해 초부터 주요 은행들의 FIDO 생체인증 서비스 오픈에 이어, 국내 카드사 최초로 오픈한 것이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의무화 폐지에 따라 FIDO 생체인증이 전 금융기관으로 도입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온시큐어의 '터치엔 원패스'는 2015년 5월, 국제 FIDO 얼라이언스로부터 세계 최초로 공식인증(FIDO Certified)을 받아 전 세계 생체인증 기술과의 호환성을 확보했으며, 안드로이드 및 i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의 확장성도 제공한다.

'터치엔 원패스' 도입 시 고객은 패스워드 입력 없이 본인 지문 등 생체인식으로 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또 개인 인증정보가 네트워크로 전송되지 않고 기업 서버에도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탈취 위험이 없다. 단말기를 분실해도 본인의 생체정보 없이는 타인의 부정사용이 불가능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환경을 제공한다. 송영록 기자 syr@

종목돋보기

모다정보통신 자회사 플레이어옥션 북미시장 포켓몬고 아이템 거래중개

최근 IMI익스체인지 인수로 아이템메니아·베이 자회사로 양사 작년 순익 111억 달해

모다정보통신이 최근 인수한 자회사 플레이어옥션이 북미지역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포켓몬고(GO)'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모다정보통신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 인수한 게임아이템사 IMI익스체인지의 자회사 플레이어옥션은 '포켓몬고'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다.

모다정보통신은 최근 게임아이템사 IMI익스체인지 인수를 마무리했다. IMI익스체인지는 B&M홀딩스의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자 케이먼제도에 설립된 회사다.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아이템메니아(법인명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지주회사인 B&M홀딩스, 미국 소재의 게임 아이템 거래회사 플레이어옥션(Player Auctions LLC)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는 리니지, 블레이드앤소울, 뮤 등 약 500여 개의 온라인게임과 블레이드, 몬스터길들이기 등 약 200여 개의 모바일게임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양사 합산기준 매출 587억 원, 영업이익 136억 원, 당기순이익 111억 원을 기록했다.

인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는 이달부터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며 모다정보통신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플레이어옥션 사이트를 살펴보면, 현재 포켓몬고 계정 등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다.

모다정보통신 관계자는 "포켓몬고 아이템 거래가 활발해 질 경우, 향후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저전력·장거리용 '무선통신 모듈' 바른전자, 국내 이통사 공급논의

'로라' 옥외 10km 안팎까지
배터리 수명 수년간 유지도
교통·가로등 등 다양한 활용

바른전자가 국내 이동통신사와 사물인터넷(IoT)용 저전력·장거리 무선통신기술인 로라(LoRa) 모듈 공급을 논의 중이다.

14일 바른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 순위권 이동통신사와 로라 모듈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통사에 로라 모듈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물량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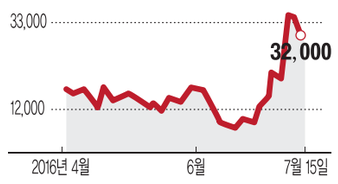
로라는 기존 와이파이, 블루투스, 저전력 블루투스 모듈이 100m 이내 근거리 통신 기술이라면 로라는 10km 안팎의 장거리용이다. 특히 로라는 10Mbps 미만 저속 무선통신으로 적은 단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소물인터넷(IoST)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로라는 옥외에서 10km 안팎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전력소모가 적어 배터리 수명이 수년간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단거리 기반의 서비스를 장거리로 확장하면 중계기인 리피터와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낮출 수 있다. 비용 효율성과 높은 확장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저속 무선 모니터링이나 제어 설계에도 적합하다.

로라는 교통, 가로등, 주차, 보안시스템 등의 스마트시티, 스마트 미터링(Smart Metering) 및 스마트 가전, 조명, 산업용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 통신사가 로라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유럽과 로라 네트워크 로밍 시스템 개발에도 협력하고 있다. 로라 국제 로밍이 성사되면 여행 가방 위치 추적 서비스를 비롯해 국가 간 이동 시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할 수 있어진다.

바른전자는 IoT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IoT 시장 연결의 주체인 근거리 및 장거리 통신모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ㅇ

텔콘 주가
단위: 원



텔콘 참여 한일진공컨소시엄 케이피엠테크 우선협상자에 "바이오·제약기업 도약 기대"

통신장비 전문기업 텔콘이 한일진공컨소시엄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 공개매각 입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텔콘은 13일 한일진공 및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한일진공컨소시엄)이 케이피엠테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보유 중인 케이피엠테크 보통주 296만3670주(지분율 37%)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케이피엠테크의 유상증자에 텔콘이 100억 원, 한일진공이 10억 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

케이피엠테크는 PCB,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표면처리 약품 및 도금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2년 경영난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후 2013년 IBK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워크아웃 돌입 후 진행한 감자 및 자회사 매각, 채권단 출자전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기업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번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워크아웃에서 풀리게 될 전망이다.

텔콘은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향후 본계약이 마무리되면 케이피엠테크의 최대주주로 등극할 예정이다. 한일진공컨소시엄 등은 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콘은 최근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케이피엠테크도 항균·항바이러스 마스크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있어 향후 케이피엠테크와 사업 연계를 통해 바이오·제약 관련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케이피엠테크, 한일진공, 텔콘 모두 IT부품용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텔콘과 케이피엠테크는 도금 분야에 특화됐는 만큼 기존 사업 부문에서도 사업적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텔콘 관계자는 "케이피엠테크는 텔콘이 새롭게 추진하는 바이오·제약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해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렇게 와일드한 K5는 없었다

K5 GT-LINE

당신의 터닝 포인트

2017 K5 탄생

이렇게 프레스티지한 K5는 없었다

K5 Signature

KIA

The Power to Surprise

당신의 스타일 변신을 위한 K5만의 특별한 제안

K5 스타일 UP 패키지

※시그니처 & GT 라인의 프리미엄 디자인 사양을 선별하여 주력 트림부터 합리적 가격으로 선택 가능하게 한 스페셜 패키지

스타일 UP 패키지 89만원


18인치 럭셔리 알로이 휠


블랙 스웨이드 헤드라이닝


알루미늄 콘솔 어퍼 커버


LED 헤드램프

터보 스타일 UP 패키지 99만원


18인치 스포티 알로이 휠 & 전륜 적색 캘리퍼


듀얼 머플러 & 스키드 플레이트

■ 회색 영역은 스타일 UP / 터보 스타일 UP 패키지 공통 사양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 CVVL 자동6단 16인치 : 복합연비 12.1km/ℓ (도심 10.6km/ℓ, 고속도로 14.8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50kg | 복합CO2배출량 137g/km - 3등급 ▷ 2.0 CVVL 자동6단 17인치 : 복합연비 12.1km/ℓ (도심 10.6km/ℓ, 고속도로 14.8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70kg | 복합CO2배출량 137g/km - 3등급 ▷ 2.0 CVVL 자동6단 18인치 : 복합연비 11.6km/ℓ (도심 10.2km/ℓ, 고속도로 13.8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75kg | 복합CO2배출량 144g/km - 3등급 ▷ 2.0 T-GDI 자동6단 18인치 : 복합연비 10.4km/ℓ (도심 9.1km/ℓ, 고속도로 12.5km/ℓ)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565kg | 복합CO2배출량 163g/km - 4등급 ▷ 1.6 T-GDI 7DCT 16인치 : 복합연비 12.8km/ℓ (도심 11.3km/ℓ, 고속도로 15.2km/ℓ)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460kg | 복합CO2배출량 130g/km - 3등급 ▷ 1.6 T-GDI 7DCT 17인치 : 복합연비 12.6km/ℓ (도심 11.2km/ℓ, 고속도로 15.0km/ℓ)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465kg | 복합CO2배출량 132g/km - 3등급 ▷ 1.6 T-GDI 7DCT 18인치 : 복합연비 12.2km/ℓ (도심 10.9km/ℓ, 고속도로 14.3km/ℓ) | 배기량 1,591cc | 공차중량 1,495kg | 복합CO2배출량 137g/km - 3등급 ▷ 2.0 LPI 자동6단 16/17인치 : 복합연비 9.4km/ℓ (도심8.3km/ℓ, 고속도로 11.3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55kg | 복합CO2배출량 138g/km - 4등급 ▷ 2.0 LPI 자동6단 ISG 16인치 : 복합연비 9.6km/ℓ (도심8.5km/ℓ, 고속도로 11.3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60kg | 복합CO2배출량 136g/km - 4등급 ▷ 2.0 LPI 수동6단 16인치 : 복합연비 9.6km/ℓ (도심8.8km/ℓ, 고속도로 10.7km/ℓ) | 배기량 1,999cc | 공차중량 1,440kg | 복합CO2배출량 134g/km - 4등급 ▷ 1.7 디젤 7DCT ISG 16인치 : 복합연비 16.1km/ℓ (도심15.0km/ℓ, 고속도로 17.8km/ℓ) | 배기량 1,685cc | 공차중량 1,510kg | 복합CO2배출량 116g/km - 1등급 ▷ 1.7 디젤 7DCT ISG 17인치 : 복합연비 15.9km/ℓ (도심14.7km/ℓ, 고속도로 17.7km/ℓ) | 배기량 1,685cc | 공차중량 1,530kg | 복합CO2배출량 118g/km - 2등급 ▷ 1.7 디젤 7DCT ISG 18인치 : 복합연비 15.6km/ℓ (도심14.5km/ℓ, 고속도로 17.2km/ℓ) | 배기량 1,685cc | 공차중량 1,535kg | 복합CO2배출량 120g/km - 2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친환경 경제운전으로 연비는 높이고, 기름값은 아끼고!

AUTO Q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Care Service
기아자동차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